

Copy
1063
3 - JUL 1 - 8

소년단

1962. 9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동시)

마음의 노래

김 학 연

맑고 넓은 아침'길
어깨 곁고 손목 잡고
모두 모두 즐거이
학교로 갈 때면.....

맘속에 항상 들려 오지요.
아침'길의, 속삭임
가벼이 설렁이는
가로수의 말

«애들아! 애들아!
너희들은 아니?
누가 누가 이 길을
즐겁게 해 주니?»

◇
붉은 푸른 꽃밭에
둘레 둘레 모여서
모두 모두 춤추며
노래 할 때면.....

맘속에 항상 들려 오지요
꽃잎들의 속삭임,
나비들의 말

«애들아! 애들아!
너희들은 아니?
누가 누가 꽃밭속에
자라게 해 주니?»

◇
불 밝은 창'가
책상 앞에서
숙제 공부 마치고
일기를 쓸 때면.....

내 마음 항상 노래로 넘치죠.
-행복한 나의 집,
즐거운 나의 학교
고마와라! 인민 주권!

마음의 노래 일기에 적고 나면
벽에 부친 그림도
웃으며 말하죠!
-10월 8일은 선거의 날이다!



그림 이야기

화로 속에 묻은 작란

-한일 빨찌산 투사 김 자린 아저씨의 이야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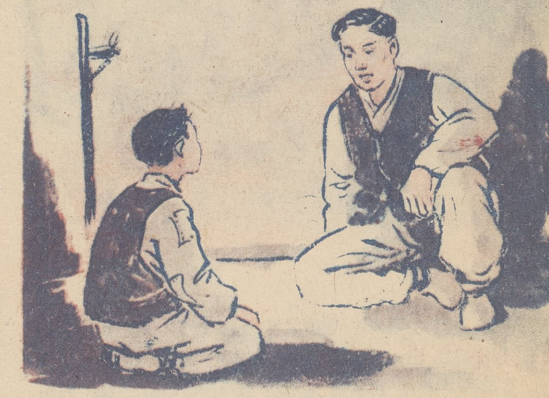


① 자린 아저씨네 고향은 함북도 명천군이다. 땅 없고 집 없는 가난한 농사'군의 아들로 태어난 아저씨는 왜놈들과 지주 놈들의 골angk이질에 더는 견딜 수가 없어 마침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산 설고 물설은 만주땅 연길현 남창암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② 행여나 살'길이 있을가 하고 이사는 하였으나 왜놈들이 있고 지주와 자본가 놈들이 있는 세상은 어디나 한가지였다.

살'길을 잃고 더러운 세상을 한탄 하던 아버지는 끝내 집을 떠나고 어린 아저씨와 어머니만이 남았다.

어린 아저씨는 하는 수 없이 지주 리 승준의 머슴 살이를 하게 되었다.



③ 머슴이 된 아저씨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소를 먹이고 김을 태어야 했다.
비오는 어느날 아침 조반도 못 먹은채 비를 함백 맞아가면서 꼴을 한집 베어 가지고 돌아 오니 지주 놈의 마누라가 꼴을 적게 베어 왔다고 야단을 치는 것이었다. 분어치밀은 아저씨는 밥상을 뒤엎어 놓고 지주 놈의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④ 어머니를 모시고 대경당요라는 곳으로 이사를 온 아저씨는 다시 김 통령이라는 지주놈의 머슴으로 살게 되었다. 여기서 백 군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이 분은 아저씨에게 조선 사람이 못 사는 것은 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 때문이며 우리가 나라를 찾고 잘 살자면 반드시 원수놈들을 쳐부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소년단》
1962년 9호 내용

그림 이야기 - 화로 속에 묻은 작란

- 그림 최 순천 (1)
-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정 남연 (4)
- 행복의 집..... (6)
- 국사봉의 소년 공작대..... 김 준규 (8)
- 집단과 동무를 사랑하는 마음..... 백 승욱 (12)
- 고마운 우리 주권..... 조 몽우 (16)
- 다시 돌아 오지 못한 일순이..... 리 형주 (18)
- 동화-까마귀 할미와 착한 새를..... 김 재원 (20)
- 동식물계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최 여구 (24)
-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슬기로운 인민..... 김 석형 (26)
- 이였다..... (28)
- 적척 할아버지..... (28)

- 독자란..... (30)
- 튼튼한 몸은 어려서부터..... 신 금단 (33)
- (현재 그림) 도끼 장군 (5회)..... 클 리 원우 (34)
- 유쾌한 오락실..... 그림 남 현주 (38)
- (현재 만화) - 원수 같은 깡충이 (4회)..... (38)
- 표지 1면 - 앞날의 우주 정복자들..... 촬영 리 중록
- 표지 2면 - (A) -마음의 노래..... 김 학연
- 표지 3면 - 백룡대굴과 동룡굴.....
- 표지 4면 - 바다 속의 비밀을 찾아서..... 그림 박 춘삼



⑤ 군침 아저씨의 지도 밑에 자린 아저씨는 흥신 연락과 빼라 공작을 하게 되었다.
눈보라치는 겨울 밤 원수놈들의 눈을 피해가며 흥신을 전하고 담 모퉁이마다에 빼라를 뿌리는 일은 어린 아저씨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저씨는 맡겨진 위임을 끝까지 수행하곤 하였다.



⑥ 아저씨의 가슴에는 원수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을 마약하는 마음이 나날이 자라났다. 한번은 지주 한 초사의 아들 녀석이 아저씨를 염수이 여기며 놀러 먹으려고 수작을 걸었다.
격분한 아저씨는 지주놈의 아들 녀석을 그 자리에 땀과 꽃과 찌소리 못 하도록 밟아 놓았다.



⑦ 그 후 자린 아저씨는 영예로운 소년 선봉대에 임대하였다. 임대하는 날 아저씨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혁명 조직에서 주는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리라고 가슴 깊이 맹세하였다.
혁명 조직에서는 소년 선봉대원인 자린 아저씨에게 지주 흥 웅산의 머슴으로 들어가 일 할 것을 위임하였다.



⑧ 지주 흥 웅산은 악질 지주로서 소문난 놈이었다. 아저씨가 머슴으로 들어간 어느날 당 지부 책임자인 김 인준 아저씨가 찾아 와서 무기를 모획할 궁리를 해 보라고 과업을 주었다. 그러면서 작란 한개를 내 주는 것이었다.



⑨ 비가 내려 어둑 컴컴한 어느날 낮이었다. 부엌에서 소죽을 끓이고 있는 데 호도병(국민당 반동 군대) 여러놈이 우루루 몰려 들었다.
놈들은 자린 아저씨가 살고 있는 방에 밀려 들어 가 총을 벗어 벽에 걸어 놓고 아편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자린 아저씨의 머리에는 좋은 생각이 번개같이 스쳐 지나갔다.



⑩ 아저씨는 얼른 청동 화로에 작란을 묻고 그 우에 술불을 별정게 담아 방안에 틀어 놓으면서 <추운데 불을 쪼이시오> 라고 하였다.
비를 맞아서 추워하던 놈들은 좋아서 너털 웃음을 지며 화로 가에 바싹 모여 들었다. 이것을 본 아저씨는 속으로 <됐다> 하고 한성을 울리며 얼른 대문 밖으로 나와 감'가로 나갔다.



⑪ 이윽고 방안에서는 <파르릉>하는 요란한 폭음이 터져 나왔다.
문밖과 휴먼지가 폭음과 함께 하늘 높이 솟아 올랐다. 감'가에 었드려 있다가 얼핏 달려들어 가보니 방안에는 시체가 너저분하였다. 그러나 아저씨가 노리고 있던 총은 온데 간데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⑫ 일은 이렇게 되었다. 호도병들이 흥 웅산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마을 소년 선봉대원들은 비밀리에 이 집을 포위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폭탄이 터진 것이었다. 자린 아저씨가 한 일이 라고 알아 차린 소년 선봉대원들은 휴먼지 속으로 뚫고 들어가 자린 아저씨가 돌아 오기 전에 벌써 총을 겨냥 가지고 빠져 나갔던 것이다.
첫 혁명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아저씨는 뽕피산에 임대하여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원수 왜놈들과 용감히 싸워 이겼다.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공훈 교원

정 남연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산과 들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있으며 도시, 농촌, 어촌에서는 여섯개 고지 점령의 불꽃튀는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름 방학을 보람 있게 보내고 새결심 새용기로 새학기를 맞은 소년단원 동무들도 모두가 최우등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기운차게 나섰겠지요.

나는 새학기 학습에 펼쳐 나선 동무들에게 몇마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0여년을 두고 교원 생활을 한 나의 눈 앞에는 내가 배워 준 수많은 학생들이 떠 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나는 7년 동안 계속 최우등을 한 김 창옥 학생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창옥이는 내가 평양 고급 중학교 (지금의 외성 중학교)에서 교원 생활을 할 때 가르친 학생입니다.

나는 하루 창옥이네 집에 가정 방문을

간 일이 있습니다.

창옥이의 방에 들어서니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책고지에는 교과서, 참고서, 학습장이 학과별로 정돈되어 있고, 벽에는 생활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 들어 서기만 해도 머리가 정돈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창옥이의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 하였습니다.

《창옥이는 학교에서 돌아 오면 곧 복습에 착수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면 방에 누가 들어 오는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하지요.

창옥이는 매일 이렇게 두시간씩 공부합니다.

공부를 끝내기만 하면 또 집' 일을 돕느라고 열성이지요. 집안을 청소하고 동생을 보살피는 일은 창옥이가 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뿐만이 아니지요. 창옥이는 어떤 생각지 않던 일이 생겨서 그날 복습 시간에 복습을 못하게 되는 때는 어떻게 짬을 내서라도 그날 학습은 그날로 꼭하고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로어, 한문은 언제나 단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며 짬짬이 외우고 수학이나 기타 과목도 길을 가면서도 그 내용을 생각해 보는 습관을 부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잘 시간이 늦어도 꼭 과제를 하고야 잠' 자리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학교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끝난 오후 공부를 시작하

려고 보니 창옥이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창옥이는 하루의 결석도 지각도 없는 학생인데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나는 학생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점심 시간에 집에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갔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마침 창옥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개서 동무들을 바라보던 창옥이는 눈물을 뿜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시간이 끝난 후 그를 불러 지각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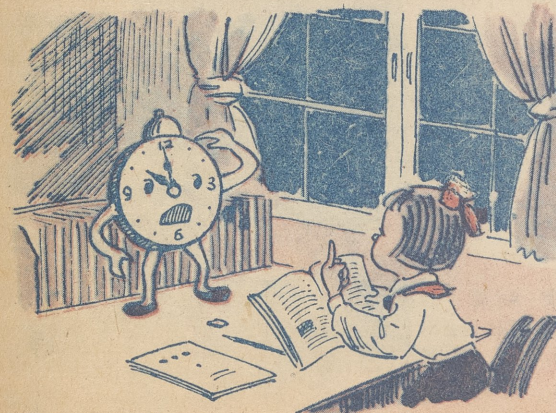
《점심 시간에 집에 잠깐 다녀 가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있어 집에 갔다가 빨리 오느라고 했는데 그만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는 눈물을 뿜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해 설에 수상님의 신년사를 들으면서 노동자 아저씨들이 그날 계획을 그날에 완수하는 것처럼 하루의 결석 지각도 없이 그날 배운 것을 그날에 꼭꼭 해내자고 결심하고 실천해 왔는데 그만 지각을 했으니 여지까지 힘써 오던 것이 허사로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나는 창옥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창옥은 학교에서도 매우 학습 태도가 바르고 깊이 생각하고 좋은 질문도 제일 많이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단 사업이나 학교 일에 언제나 앞장 섰습니다. 그래 창옥이는 항상 최우등의 성적을 거두었고 동무들의 신망도 높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학습에 정력을 다하는 것이며, 정해놓은 학습 규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어느날 온실에서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온실에서 생물 크루쇼크원들과 같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인민반 학생들이 들어 와서 《화분에 물을 준 후 얼마 있으면 물이 잎까지 올라가 깨듭니까?》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매우 흥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들에게 화분에 자기 손으로 물을 주고 조사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그들의 성적과 생활을 알아보니 아주 공부 잘하는 모범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에서 여러가지 자연 현상과 모든 일에 대해서 무심히 보지 않으며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습과 관찰을 통해 실지 실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험 실습을 할때 언제나 파고 들어 그 원리를 알아 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학과 성적을 높이는 방법은 정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꾸준한 노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소년단 잡지나 소년 신문에 소개 되는 좋은 모범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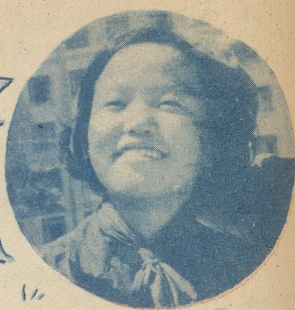
그것을 배워 그 방법을 자기에게 알맞게 본받아 나간다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 락제한 학생이 최우등이 된 실례, 1학기에 다섯개 과목이 락제였던 학생이 우등으로 진급한 실례, 이밖에도 좋은 실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어떤 과목은 재미 있고 어떤 과목은 재미 없다고 하는데 재미 없는 과목이란 없습니다. 재미 없는 것은 그가 그 과목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굳은 결심을 가지고 꾸준히 복습하며 실험 실습으로 배운 지식을 깊고 넓게 다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후는 동무들이 학습하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모두다 열심히 공부하여 최우등생이 됩시다.

행복의 집



—신민주 혁명 학원 리 영순 동무—



(1)
맑고 푸른 하늘을 떠 받들고 우뚝 솟은 아동 궁전 앞에서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거리를 굽어 보는 이들을 보세요. 이들은 당의 품 속에서 행복하게 꽃 피어 나고 있는 신민주 혁명 학원 소년단원들입니다.



(2)
여기는 모란봉 극장
극장을 들었다 놓는듯한 박수 또 박수...《원수님이 주신 악기 잘도 울려요》를 연주하는 신민주 혁명 학원 씨름왕들의 공연이에요.
맨 앞 줄에 아쟁을 재롱스럽게 연주하는 동무가 있지요? 그가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리 영순 동무예요.



(3)
지금 첫대를 멋지게 불고 있는 동무는 사리원 혁명 학원에 다니는 영순이의 셋째 오빠예요. 영순이 아쟁 연주가로 오빠는 첫대, 연주가로 두 오누이는 전국 혁명 학원 및 초등 학원 예술 축전에 올라와 이렇게 만났어요.



(4)
그럼 우리 모두 영순이네 생활을 보기로 합가요.
먼저 생활실에 들렀군요. 새 교복을 입고 좋아하는 영순이를 보세요. 몇발씩이나 되는 여름옷, 겨울옷, 내의, 꽃이불, 하복... 얼마나 좋은 행복의 집이에요.



(5)
의무실에서 의사 선생님 앞에 서 있는 영순이를 보세요. 얼마나 씩씩하고 명랑해요. 감기 하나 틀체라 의무실에서는 항상 원아들의 건강을 보살피지요.
《영순이는 언제나 건강하잖!》
《나 뿐인가요. 이밖에 고기국 먹고 계란, 시랑을 먹고 항상 운동을 하는데요 마》 영순이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이렇게 명랑하게 대답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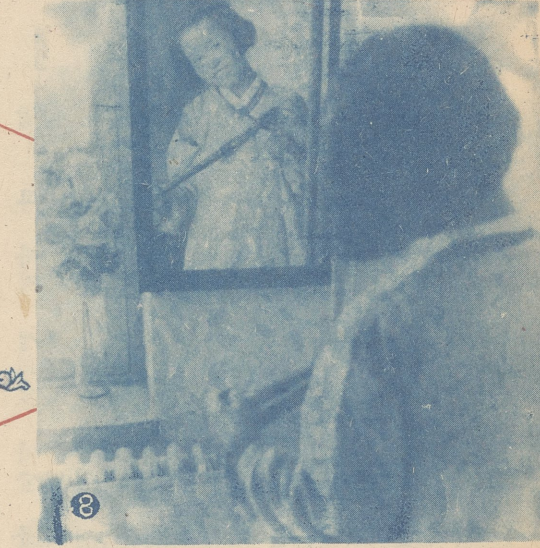


(6)
방과 후 복습 시간이지요. 영순이는 학원 실험실을 찾아 왔지요. 영순이는 분단 동무들과 함께 늘 여기서 배운 지식을 깊게 다집니다. 실험 실습실에는 앞날의 기사, 기수로 될 이들에게 부족한게 없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7)
음악실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바이올린, 가야금, 나팔... 무엇이든 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잡지요. 영순이는 지금 바이올린도 배우고 아쟁도 배우며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키우고 있지요. 그리하여 제법 《아쟁 명수》가 된 영순이는 영예롭게도 전국 축전에 올라 왔지요.

(8)
수도에서의 나날은 정말이지 행복하고 즐거워요. 고운 무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영순이를 보세요. 밤이 깊었는데 영순이는 잠그머니 일어났지요.
래일은 평양 대극장에서 공연하거든요. 그러니 어찌 잠들 수 있겠어요.



(9)
대동강 유보도를 거닐며 오늘의 행복에 대하여 회상한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네 오누이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말 오빠도 평양 기계 대학에 다니고 둘째 오빠는 국제 관계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김 일성 원수님이 령도하는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자라는 이들을 어찌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라 하겠습니까!



국사병의 소년 공작대

황해남도 웅진에서 북쪽으로 50리쯤 가면 국사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기슭을 따서 감돌아 흐르는 내'물을 사이 두고 삼산리와 진해리의 아담한 두 협동 마을이 있습니다. 3.8선이 이 내'물을 따라서 지나 갔기 때문에 지난 조국 해방 전쟁까지 진해리는 북반부였고 삼산리는 남반부였습니다.

여기 진해리에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 때 미제 원수놈들을 반대하며 용감히 싸운 벽성군 국사인민 학교 (지금은 웅진군 진해 중학교) 소년 공작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향을 위하여

한잎 두잎 빨간 단풍 잎이 떨어져 흩날리던 1950년 10월 어느날이었습니다.

《따쿵... 따쿵...》

미제 원수놈들의 저주로운 총소리가 고향 마을을 어지럽혔습니다.

《동무들은 고향에 남아 원수놈들과 싸우시오 <소년 공작대>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하오》

빨찌산으로 떠나는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께서 이런 임무를 받은 복순이와 그의 동무들은 장압산에 올라가 불타는 눈으로 고향 마을을 살폈습니다.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원수놈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놈이 권총을 빼들더니 어머니를 부르며 따라오는 어린 애를 거리낌없이 쏘아 죽이고 미친듯 웃고 있었습니다.

《소년 공작대원들》의 눈에서는 불'길이었습니

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에게 죽음을 주자! 소년단원의 영예를 지

켜 아동단원들처럼 용감히 싸우자!》

공작대장인 최 춘효가 웨쳤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말고 싸우자》 복순이가 힘있게 웨쳤습니다.

드디어 이들의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마다 마을의 골목 골목에는 《빼라》가 나붙었습니다.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원수 만세!》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원수놈들에게 조금도 굴하지 맙시다》

빼라를 보고 겁을 먹은 원수놈들은 미친듯이 싸다니며 악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복순이가 마을의 세포 위원장이었던 윤 이선 아저씨를 만났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 왔습니다.

마을 일을 처리하고 좀 떨어져 구월산으로 후퇴하던 아저씨는 신천에서 원수놈들에게 붙잡혔다가 보초놈을 까 높이 《수대산》에 가서 빨찌산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기자 김 준규

이때부터 소년들은 아저씨와 련계를 가지게 되었고 식량을 보내며 적정을 알리는 등 빨찌산 아저씨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원수놈들의 인원수, 무기 등을 알아 내려고 정찰 나갔던 성덕이와 춘효, 부전이가 놈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밤 복순이는 세 동무가 다 하지 못한 정찰을 마저 해 가지고 윤 이선 아저씨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마을로 돌아 오던 복순이는 동무들의 소식을 알고져 동무들이 갇혀 있는 집 뒷편에 살금살금 기어가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복순이의 뒤를 따르고 있던 원수 한놈이 복순이의 목덜미를 덥석 잡았습니다. 복순이는 껌 돌아서며 안정 깬 그놈의 상판을 힘껏 갈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팍에 총알을 내밀며 이번엔 미군 한놈이 앞을 막았습니다. 《개놈들아 길을 비켜라! 여기는 우리 조선 땅이다》 복순이의 이 웨침은 총탄이 되어 놈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가슴 속에 비밀이 있다》

원수놈들의 모진 고문을 받고 감방에 돌아 온 춘효는 정신을 잃고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춘효야!》 복순이와 부전이는 춘효 곁으로 와락 다가가 어깨와 등으로 그를 부추켜 앉혔습니다.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옷자락을 물어 찢어 피흐르는 이마를 씻어 주었습니다. 서로 어깨를 맞대고 힘있게 기대어 앉은 그들의 입에서는 낮게 그러나 힘있는 노래 소리가 흘러 나왔습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 어린 자욱!

.....

작은 피창으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서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눈은 빛났습니다.

《요 <빨갱이> 새끼들아 닥치지 못해.》 노래 소리에 당황한 원수놈들은 미친듯이 달려 들어 총탄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노래 소리는 더욱 높이 울렸습니다.

.....

아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 일성 장군 《어제 밤에 만난 게 누구냐? 그놈과 만

나는 장소와 시간을 대라!》

원수들은 복순이를 바'줄로 묶어 매 달고 이렇게 고문했습니다. 그러나 복순이의 입에서는 《개놈들아 모른다!》 이 한마디 대답만이 울려 나왔습니다.

이날 저녁 원수놈들은 만 방에 갇혀 있던 성덕이를 끌고 들어 오더니 복순이와 춘효, 부전이를 한데 묶어 어디로인지를 끌고 나갔습니다.

네 동무가 평평 쏟아지는 눈'길에 다리를 끌며 삼산 변전소 창고에 들어 섰을 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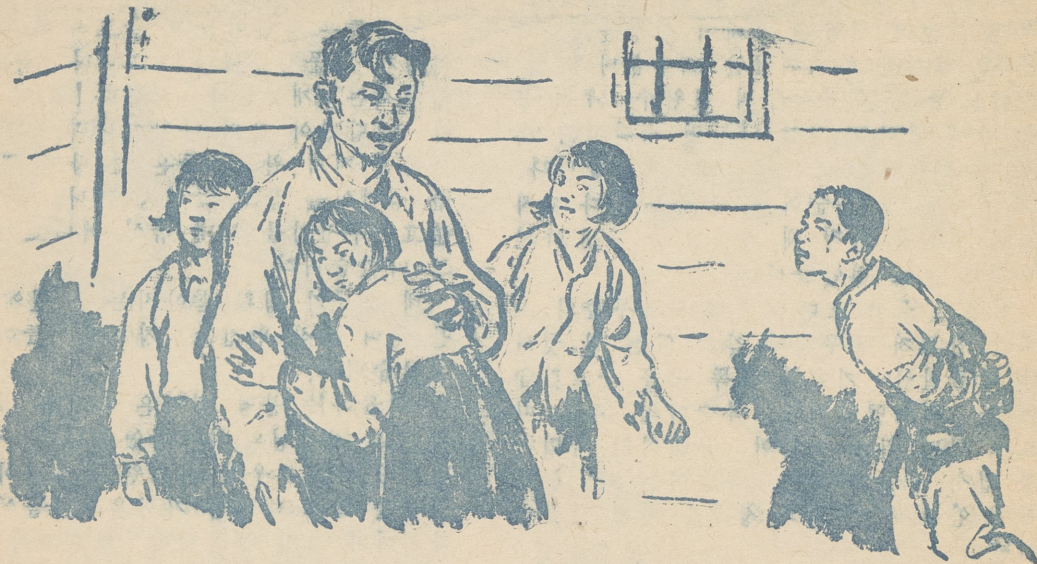
《애들아!》 분명 귀익은 소년단 지도원 정 상교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구월산 빨찌산에서 싸우던 지도원 선생님이 정찰 임무를 맡고 테란을 가까운 마을에서 공작하다가 그만 놈들에게 체포되어 끌려왔던 것입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휘몰아 드는 찬바람에 너털너털 날리고 있었습니다.

간악한 원수놈들은 어떻게나 고문했는지 도무지 선생님의 그전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네 동무는 외락 선생님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장하다, 참 용구나, 너희들은 참된 소년단원이다. 애들이 원쑤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말자.》

언제나 새 힘과 용기가 나게 하던 그 힘찬 지도원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우린 울지 않아요.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네 동무는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선생님을 쳐다보며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간학한 원쑤들은 선생님의 땅 어깨를 쇠줄로 꿰서 사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네놈들이 나 하나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조선 사람을 다는 못 죽인다. 나에게서 비밀을 알아 내려거든 내 가슴을 찢어 보라, 그 속에 비밀이 있다. 여러분! 모두 단결하여 저 재능들과 끝까지 싸우십시오.》

지도원 선생님의 이 마지막 목소리는 찢렁찌렁 산을 울리며 원쑤들의 심장을 절렀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복수에 뛰는 두 주먹을 부르짖었습니다.

공작대원들의 어린 가슴엔 원쑤를 증오

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겁게 고동쳤습니다. 복순이의 눈 앞에는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며 《빨찌산의 딸》—정 만큼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시던 지도원 선생님의 웃음 어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948년도에 중앙에서 받은 모범 학교 기'말을 소년단실에 걸어 놓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동무들의 마음이 이 기'말에 깃들여 있습니다.》라고 하던 지도원 선생님의 말씀이 쟁쟁하게 울려 왔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소년단원이다.》 복순이는 가슴 속에 품었던 공화국 기'말을 꺼냈습니다.

세 동무는 기'말을 펼쳐 들었습니다.

원쑤들은 행복한 이 조국의 기'말을 짓밟으려 그 얼마나 미쳐 날뛰고 있는가! 어찌 이 기'말을 원쑤들의 손에 더럽힐 수 있으랴!

《놈들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말을 원쑤에게 넘겨 줄 수는 없다. 우리가 승리한 날 우리 동무들이 와서 파내도록 이 구들 밑에 파묻자.》

춘효의 말이었다.

《아니야, 난 이 기'말을 끝까지 품고 있을래.》

복순이는 잠시도 이 기'말과 떨어져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말은 다시 복순이의 품에 간직되었습니다.

이 때 원쑤들이 달려 들어 와 제일 어리고 키가 작은 복순이만 남기고 부견이, 춘효, 성덕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이윽하여 복순이는 멀리서 들려 오는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들 나 어린 투사들의 준엄한 싸움의 밤은 깊어 갔습니다.

그 이튿날 복순이는 땀뻑하게 사형장으로 나갔습니다.

《다지막으로 묻는다. 너희들이 소년 공작대에서 무슨 일 했느냐? 윤 이선지와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대라, 그러던 살려 준다.》

《치안대》장 오가늬미 미군 장교놈에게 굴진거리더니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말 없이 사랑하는 고향의 산과 들을 바라 보았습니다.

행복하게 배우며 뛰놀던 학교가 그의 눈에 안겨 왔습니다.

《이 승냥이놈들아, 나는 소년단원이다! 네놈들에게 그 더러운 목숨이 중하지만 나에게 조국이 더 중요하다.》

복순이의 이 웨침에 망아쇠를 당기는 원쑤의 총구는 떨렸습니다.

《조선 노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복순이는 끝까지 원쑤들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국사봉 기슭은 만세 소리로 들끓었습니다.

남으로 남으로 원쑤를 무찌르며 진격해 오던 인민 군대 아저씨들과 함께 수태산에서 싸우던 윤 이선 아저씨를 바닷한 빨찌산 아저씨들이 마을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사형장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잔신히 살아 난 부견이는 개천'가로 뛰어 나갔습니다. 그는 가슴을 끌어 안은채 굳어진 복순이를 발견했습니다.

복순이의 가슴에는 붉은 벚라이에 싸고 또 싸인 공화국 기'말과 소년단 기'말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이렇게 다지막 순간까지 조국

의 기'말을 고이 간직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국의 기'말 앞에서 그것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운 《국사봉 소년 공작대원》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 복순, 김 춘효, 고 성덕...

X X

그 때로부터 12년이 지났습니다.

국사봉 기슭의 이 영원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하여지고 또 전하여지면서 우리 소년단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는 왜 달알 모양으로 되었을까요?



지구는 공처럼 둥근 것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여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얇고 탄성 있는 철판으로 ① 두 개를 만든 다음 그림 1과 같이 가락지 모양을 만들어 축에다 끼우십시오.

축을 빨리 돌리면 ②의 부분은 아래로 내려 오면서 철판으로 만든 가락지는 그림 2와 같이 달알 모양(타원형)으로 됩니다.

이와 같이 원이 회전 운동 할 때 원 중심에서 힘이 원 밖으로 멀어져 나가려는 현상을 원심력이라 합니다.

지구는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 축을 중심으로 하여 하루에 한 번씩 돌립니다. 이때 축에 수직인 적도 부분에는 지구 중심으로부터 힘이 멀어져 나가려는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때문에 지구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단과 동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림 현준섭

본사 기자 백승옥

이전에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김 명옥 동무는 평양시 열매산 구역 학산 중학교의 단 위 원장(초급반 1 학년 생)입니다.
그는 지난 해에 본단 위원장으로 학습에서 뒤 떨어진 14 명의 본단 동무들을 우등 최우등생으 로 이끌어 올렸으며 자기의 본단을 《모범 본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김 명옥 동무에게 있는 수 많은 자랑스러운 이 야기를 가운데서 이제 한 토막 이야기만 들어 보 기로 합니다.

☆ 덕서와 함께 새운 밤

명옥이는 캄캄한 밤'길을 떠들으며 언덕 넘어의 덕서네 집을 향하여 걸어 갔습 니다. 사방은 고요하고 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벌써 밤이 되 그 나 깊어진 것입니다.

《그 애가 아직도 자지 않고 있을까? 내가 너무 했다고 생각해나 않았을까?》

이것 저것 생각하며 걸어 가던 명옥이 는 그만 돌'부리에 걸려 호되게 넘어졌습 니다. 《어마나!》 어둠 속에서 비명을 울 리며 명옥이는 무릎을 찌 쥐고 돌아 갔습 니다. 무릎에서 찢진찢진한 것이 손에 묻어 났습니다. 《피구나!》 명옥이는 아 픔을 참아 가며 무릎을 닦았습니다. 쪼그 리고 앉은 채 언덕 밑을 내려다 보니 덕 서네 집에는 아직도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간 명옥이는 아픈 것도 잊 고 다시 일어나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일은 그만해도 내가 잘못이 야...그 애가 그럴수록 더 잘 타일러 가던 서 배워 주어야 했을걸...)

조금 전에 덕서네 집에서 한 자기의 행 동이 못 마땅했다고 자꾸 꾸우쳐졌습니다.

얼마 전에 《모범 본단》에 걸기한 명옥 이네 본단은 규률에서나 씨클 사업, 위생 문화 사업 같은 데서는 다른 본단에 떨어 지는 일이 없었지만 학습에서만은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44 명의 동무들 중 우 등, 최우등이란 30 명 밖에 되지 않았으니 까요. 아직도 많은 동무들을 우등, 최우등 생으로 이끌어 올려야 할 형편이었습 니다. 명옥이는 본단 위원회에서 14 명 동 무들의 학습을 도와 하루 빨리 우등, 최우 생으로 이끌어 올릴 과업을 자진해서 맡 았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공부가 뒤떨어진 덕서를 위하여 매일 저녁 그의 집에 찾 아 가서 도와 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덕서를 찾아가 사칙 계산 문제 풀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덕서는 설명 을 듣지 않고 턱을 고이고 자고만 있었습 니다. 그때 그만 맥이 풀려서 명옥이는 책을 뿌려 던지고 집으로 돌아 왔던 것이 니다.

어느새 덕서네 집 문 앞에 다달은 명옥 이는 《덕서야, 덕서야...》하고 나직히 불 러 보았습니다. 덕서가 막 뛰쳐 나올 줄 만 알고 있었더니 뜻밖에도

《거. 누구냐? 덕서는 잔다...》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을 뿐입니다.

명옥이는 맥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 앉고만 싶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몰라 주 는 덕서가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글을 배워 주자고 캄캄한 밤'길을 잃어지면서 왔는데 덕서는 내 마음도 모르고...)

한참 동안 맥 없이 서 있던 명옥이는 울고 싶은 마음으로 아픈 다리를 끌며 밤'길을 되돌아 섰습니다.

이 날 밤 명옥이가 찾아 왔을 때 사실 덕서는 이불 속에서 아직 자지 않고 있었 습니다. (명옥이가 또 찾아 왔구나)하고 인차 알아 차렸지만(또 공부를 하자고 은 게지?)하고 생각하니 어쩔지 가슴이 두근거리 미처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어머 니는 그가 자는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명옥이의 발'자국 소리가 떨어진 후에도 덕서는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리 뉘척고 저리 뉘척고 하는 덕서를 보 고 어머니는 《애가 오늘 저녁엔 왜 이렇게 깊은 잠을 못 들구 꿈지락 거리기만 하느냐? 태일 아침 학교 늦겠다》하고 말씀하 셧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눈이 말뚱말뚱해 있던 덕서는 《어머니 잠이 오지 않아요...명옥이가 혼자서 고개 넘어 갈 생각을 하니 내 마음이 별해져요...》하고 말끝을 채 맺지 못했습니다. 《아니 너 그럼 아까 자지 않고 있었니!》하고 어머니는 놀란 듯이 되묻고 나서 《그 애가 널 공부 배워 주겠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대선 못 쓴 다...》 어머니는 딸을 꾸짖는 말투로 타일 렸습니다.

덕서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옷을 주섬 주섬 주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명옥이한테 가 보겠어요.》하 고 덕서는 어머니를 쳐다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어리둥절하여 있던 어머니도 덕서의 마음을 알아 차리시고 《네 그림 고개 넘어까지 데려다 주마.》

하고 뉘척하 나섰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 느라고 역시 잠들지 못하 고 있던 명옥이는 《명옥 아...자니? 나야.》하는 덕 서의 목소리에 용수철처럼 털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 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덕서가 책가방을 메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덕서 야!》 명옥이는 저도 모르 게 덕서의 책가방을 와락

잡아 당기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공부 할라고 왔어...》하고 대답하는 덕서의 목 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 최'골 고개—사랑의 고개

저녁 해가 누엿누엿 서산으로 기울어 가 는 무렵이었습니다. 집을 나선 명옥이는 삼봉 마을 반길을 향하여 더덜더덜 맥 없 이 걸어 갔습니다. 명옥이는 웬일인지 오 늘은 머리가 아프고 자꾸만 어지럼'증이 났습니다.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다리 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삼봉까지의 5 리'길이 오늘 따라 몇십리'길처럼 멀어 보 이고 몸은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간신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옮겨 놓으며 최'골 고개 마루턱까지 이르니 별안간 정 신이 아찔해지며 하늘과 땅이 맞붙어 빙글빙글 돌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순 간 명옥이의 눈 앞에는 자기를 기다리 고 있을 인숙이와 성숙이, 통화 그리고 특실이, 순실이, 덕서, 준혁이 등 14 명 동무들의 얼굴이 번개처럼 연달아 나타났습 니다. 《가야지! 어떤 일이 있어 도 가야해! 동무들이 기다린다!》명 옥은 마음을 다잡아 먹고 정신을 차리 느라 번쩍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주먹을 꼭 부르쥐고 간신히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머리 속에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다정한 동무들의 얼굴이 선히 떠 올랐습니다.



그는 몇 걸음을 더 걸어 갔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아찔해졌습니다. 명옥이는 무의식중에 옆에 선 가당나무 그루를 끌어 안았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루를 끌어 안은 명옥이의 두 손은 천천히 밀로 흘러 내려 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명옥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방안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어머니의 근심스러운 얼굴과 함께 동렬이와 순실이, 덕서, 특실이 할머니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그를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명옥아! 정신이 들었니?》

《명옥아, 명옥아!》

명옥이가 정신을 차린 것을 보자 모두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제 웬일이냐, 명옥아...그러기에 내가 뛰러던...》

어머니는 편진 명옥이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글쎄 끼니두 제대로 안 먹구 밤낮 하루 세 네 번씩 그 고개를 넘어 다니니 몸이 성할 리 있나...》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명옥이야 우리 특실이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그 애가 좀 고생을 하나요...》 허리가 굽어진 특실이 할머니가 물을 떠 가지고 부엌에서 들어 오시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이 아이지, 명옥이야 어디 아이라고...》 특실이 할머니는 명옥이에게 더운 물을 한모금 마시게 하고 나서 《에마 애비가 없어 제간살일 하는 이 할머니를 돕느라구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특실이를 돕겠다고 명옥이는 밤마다 와서 물을 짓고 팔레질을 해 준다우...》

할머니는 치마자락을 눈에 가져 가셨습니다. 이 때 한쪽 구석에서 순실이가 클리컬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웬일이냐구 모두들 순실에게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명옥이는...명옥이는...나... 나 때문에예요...》 하며 순실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더욱 흐느꼈습니다.

순실이가 가슴이 메여지는 듯 아파하는 것도 까닭이 있었습니다. 명옥이는 남달리 국어 공부를 힘겨워하는 순실이 때문에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밤 늦도록 반실에서 동무들의 학습을 도와 주고 난 명옥이는 그대로 반실에서 밤을 새우면서 순실이를 위해 철자법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실이가 빨리 철자법에 익숙되도록 그에 알맞는 문제를 만들어 내어 그걸 가지고 새벽 일찌기 순실이를 찾아 가기도 했습니다.

《순실아...울지 말어...난 그저 좀 아찔해서 그랬어...》 명옥이는 몸을 일으켜 돌아 앉은 순실이의 뺨을 잡아 당겼습니다.

《난 명옥이가 동무들 공부를 돕는 게 제일 기쁘다...그렇지만 앞으로 몸두 좀 돌보면서 해타.》

명옥이의 어머니는 얼굴에 기쁜 웃음을 띄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최우등으로 달리는 한 마음

명옥이네 분단이 《모범 분단》 칭호 경쟁 운동에 열기한지 어느덧 석달이 지났습니다. 열 네 명 동무들의 학습은 점점 앞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덕서는 사칙 응용 문제를 풀게 되었으며 순실이는 철자법 때문에 우물거리는 일이 없게 되었고 지리 공부에 뒤졌던 인숙이도 《지명 찾기 놀

음》에서 동무들을 따라 잡게 되었습니다.

애쓰고 또 애써 온 모두의 노력의 결과를 총화지어 보는 학기말 시험이 다가 왔습니다.

첫 날 시험은 산수였습니다. 첫 문제를 풀고 《6만 m》라고 답을 써 넣은 명옥이는 슬그머니 앞뒤를 휘둘러 보았습니다. 동무들이 제대로 풀었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줄 세 번째 자리에 앉은 경희는 눈도 팔지 않고 열심히 풀어 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 건너 영란이도 줄줄 연필을 옮겨 놓고 있었으며 편옥이도, 덕서도, 송남이도, 동렬이도 모두 자신 있게 풀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에게 눈길도 가지지 않았던 명옥이는 저절로 웃음이 때 올랐습니다.

우타리 앞'떨에 있는 동이 만드는 점토를 《비옥한 토양》이라고 파 가지고 와서 자연 시간에 동무들을 웃기던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준혁인 문제 없어!》 이렇게 안심한 명옥이는 두번째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난 명옥이는 시험지를 놓고 또 다시 동무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조용한 교실에는 오직 시험지 우를 달리는 44명 동무들의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연필 소리는 한결 같이 (명옥아 우린 모두 자신 있게 풀고 있다. 걱정 말아라) 하고 속삭이는 듯 하였습니다.

명옥이는 선잠으로 답안지를 선생님께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준혁이가 자기의 답안지를 덮 놓았습니다. 그 후에 또 영란이가 놓고, 편옥이가 놓고, 특실이 놓고, 덕서가 놓고, 순실이가 또 송남이가 놓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교실을 나오자 마자 누군가가 《1 번의 답은 6만 m이지?》하고 왜췌했습니다. 그러자 《맞았어! 맞았어!》, 《나도 그래!》, 《나도!》, 《나도!》하고 벅작 고아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기뻐 서로 열차 안고 돌아 가며 춤을 추었습니다.

모두가 시험을 훌륭히 치른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날 국어, 자연, 역사, 지리 과목들도 모두 훌륭하게 잘 치루었습니다. 오래'동안 애써 온 보람 있어 명옥이와 분단 동무들은 처음으로 크나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기말 시험에서 준혁이와 영란이는 최우등을 하고 나머지 12명의 동무들은 모두 우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44명 전원이 우등, 최우등의 자랑을 가지고 9분단은 《모범 분단》 칭호 경쟁 운동에 열기해 나선 자 5개월 만에 학교에서 가장 선창으로 영예로운 《모범 분단》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랑과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학습에 뛰어들었던 14명의 동무들을 우등, 최우등으로 만들었고 나아가서 분단을 《모범 분단》으로 이끌어 올린 김 명옥동무를 마을 아버지 어머니들과 소년단원들은 학산리의 《피마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며 있으며, 공화국 내각은 지난 8월에 그에게 공화국 소년단원의 최고 영예인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수여했습니다.

고마운 우리 주권

김 일성 종합 대학 법학 부장

부교수 조 몽 우

소년단원 동무들! 이제 얼마 후이면 우리 나라에 큰 정사가 온답니다.

10월 8일—이 날은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이 번 선거는 우리의 인민 정권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더 빨리 건설하고, 또 조국을 하루 속히 통일시키고, 미국놈들 때문에 고통 받는 남반부의 부모 형제 자매들과 어린이들을 하루 속히 구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일로 된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누님들은 이 날을 뜻깊게 맞이 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답니다.

동무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김 일성 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령도하에 인민 정권은 조선 인민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가져다 주었지요.

조선 인민이 인민 정권을 못 가지고 있던 해방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나, 오빠들은 일본놈과 지주, 자본가들의 발굽 밑에서 모진 고생을 했고 멸시를 받으면서 억울하게 살아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을 할때야 할 자리가 없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었습니다. 겨우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거나 땅을 겨우 빌려서 농사를 지어도 지주, 자본가놈에게 다 빼앗기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지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은 배고파 우

는 어린이들을 안고 일본놈과 지주, 자본가들을 한없이 미워하면서 한숨과 눈물로 살아 왔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누나, 오빠들은 학교타운 문턱에도 못 가고 어려서부터 힘든 일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고생했었지요. 그 때에는 일본놈과 부자놈 아이들만 학교에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것은 제 나라가 없고 인민 정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에 김 일성 원수님은 악독한 일본놈을 때려 부시고 우리 나라를 도로 찾고 인민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일으키고 몸소 지도하셨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나, 오빠들은 손에 총을 들고 일본놈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지요.

해방 후에 김 일성 원수님의 뜻대로 우리 나라에는 인민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이 령도하시는 인민 정권이 전 후에 우리 나라는 옛날과는 전혀 다르게 몰라보리만큼 달라졌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지주, 자본가가 없고 착취가 없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었습니다.

조선 인민은 나라의 주인이 되고 모든 공장과 땅의 주인이 되었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하고 싶은 좋은 공장,

일터에서 얼마든지 일하고, 땅의 주인이 되어 협동 조합들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다 학교에 들어가고 수업료도 없이 나라에서 공부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을 앓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나라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지요.

지난날 가난하던 우리 나라는 오늘 가는 곳마다에 공장 굴뚝이 솟고 이르는 곳마다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사회주의 지상 낙원으로 변하였지요. 그리하여 우리 살림은 나날이 풍부해지고 우리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이들은 김 일성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무한한 배려를 특별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상님은 어린이들을 다 학교에 보내 주시고 철따라 좋은 교복을 주시고 어떤 동무들이 공부하고 노는 데 아무런 불편도 없게끔 항상 따뜻하게 보살피고 계신답니다. 나라 일에 그렇게 바쁘신데도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를 잘 하는지 소년단 생활도 잘 하고 몸도 튼튼한지 하고 항상 근심해 주신답니다.

수상님은 어린이들의 의복과 신발, 공책과 연필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조금만 불편이 있어도 곧 해결해 주셨지요. 정말 우리 어린이들은 근심 걱정 없이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방학 때는 경치 좋은 바다'가나 혹은 산에서 즐거운 야영 생활을 하지요. 아동 궁전, 아동 공원, 아동 백화점 기타 어린이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해 놓은 것은 다 수상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깃든 것이랍니다.

금년 겨울에는 수상님의 배려로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겨울 외투와 털모자를 받게 된답니다. 얼마나 기쁘니까!

이것이 다 김 일성 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공덕이랍니다.

미국놈이 등지를 들고 있는 우리 조국 남반부 어린이들은 참으로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일'자리가 없고 오빠 누나는 학교도 못 가고 어린이들은 배고파 울고 있지요. 남조선에는 미국놈 때문에 부모를 잃고 집이 가난해서 빌어 먹는 어린이가 60만명이나 되지요.

조금 있는 학교마저도 다 미국놈의 군대가 들어 앉아 있어서 공부도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겨우 학교에 들어가도 수업료가 너무 비싸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다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남반부 어린이들은 북반부 어린이들의 행복한 생활을 무한히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서 빨리 김 일성 원수님의 품안에 안기고 싶어하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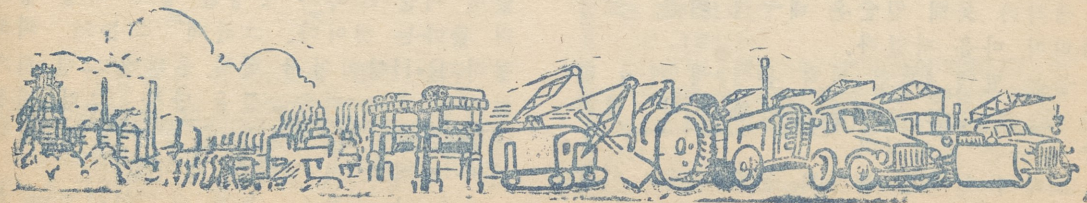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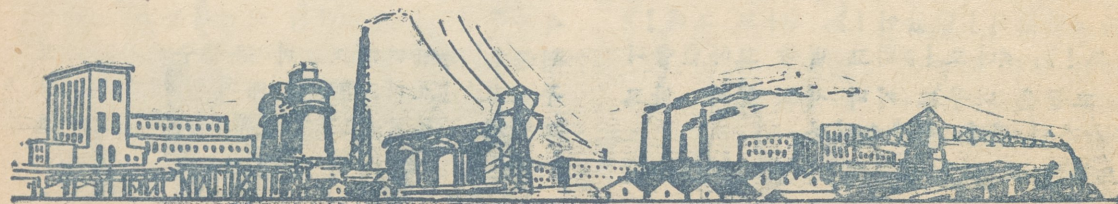
그런데 미국놈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으니 미국놈은 얼마나 악독하고 나쁜놈들입니까.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는 김 일성 원수님과 인민 정권이 배풀어 주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은혜와 커다란 행복을 한시도 잊지 말고 어린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회주의 제도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김 일성 원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어린이들은 미래의 꽃봉오리이며 미래의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무들은 항일 팔천투쟁 시기의 아동단원들처럼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깊이 명심하고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몸을 튼튼히 해서 당과 수령님의 훌륭한 붉은 전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모두다 더 공부도 잘하고 소년단 생활도 잘하는 것으로 선거를 뜻깊게 맞이 합시다.





리 형 주

그림 오 영 북

경상북도 대구의 《도립 혈액 은행》에서 피를 팔러 왔던 한 소녀가 죽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거리에 퍼졌고 사람들의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게 했다.

올해 겨우 열 세 살인 그 소녀는 이름을 윤 일순이라고 불렀다.

그는 대구에서 수백 리 떨어진 의성군 안계면에 있는 단복 실산 국민 학교를 졸업한 후 졸업하고 안계 여자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그가 처음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등록금 6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조 할아버지가 피뎠을 흘리며 일쿠어서 물려 주었다는 노들 개울'가의 손바닥만한 논까지 다 팔았었다.

하지만 돈이 드는 것은 그 때만이 아니었다. 매달 엄청나게 많은 월사금을 물어야 했다.

일순이는 석달째나 월사금이 밀렸지만 그렇게도 아끼던 땅을 팔고 속을 썩이는 아버지에게 또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줄라 본대야 또 돈이 나올 곳도 없었다.

생각다 못해 일순은 대구에 피를 팔러 가리라 마음 먹었다.

듣는 말에 《도립 혈액 은행》에 가면 피를 팔 수 있고 그러면 얼마간 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순은 누구도 몰래 길을 떠났다. 밀 한줌을 담아 넣은 것이 며칠 간 그

의 길 양식이였다.

일순은 걸었다. 배가 고팠고 다리가 아팠지만 돌아 오는 길에는 돈을 가지고 와서 월사금을 물고 마음 놓고 공부하리라 생각하니 기쁘기만 하였다.

《어머니, 아버지가 날 몹시 찾으실테지? 난 갔다 와서 빌려야, 그리고 엄마가 막 보고 싶었던 것도 꼭 얘기하구.》

일순은 이렇게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대구 시내에 들어선 그는 곧바로 《도립 혈액 은행》을 찾아 갔다.

그러나 피를 팔러 온 것은 그만인 아니었다. 꼬리가 길게 늘어 서서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순이도 그 뒤에 섰다. 이 때였다. 갑자기 미국놈 군대들을 태운 자동차가 늘어선 사람들을 깔아 놓을 듯이 무섭게 달려 와서 급히 멎더니 들것을 들고 미국놈들이 우루루 혈액 은행으로 밀려 들어 갔다.

먼저 피를 팔러 들어 갔던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에 의하면 대낮에 큰 길에서 미군 트럭과 찰차가 서로 맞 받아 찰차에 탔던 미군 소좌가 중상을 입고 피를 쏟으며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놈의 피의 형이 R·H형이어서 혈액 은행엔 그런 피가 없다는 데도 미국놈들은 당장 그런 피를 내놓지 못하면 책임질 줄 알라고 위협하면서 뺄치고 서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소문을 듣고 안 일이지만 그

날 이 미군 소좌놈은 지나가는 조선 녀성을 찰차로 깔아 놓힐 생각으로 회회터거리며 따라 가다 마주 오는 저회들의 군용 트럭과 충돌을 했다고 한다.

드디어 일순의 차례가 되었다. 여월 데로 여원 가느다란 팔을 내밀었다. 손 끝이 가늘게 떨리기만 했다.

동침 같은 바늘이 실오리 같은 혈관을 찔렀다. 검붉은 피가 주사기에 피어 올랐다. 주사침을 뺐지만 일순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없었다.

안개 속처럼 눈 앞이 포양거만 할 뿐 일순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피의 형을 검사하느라고 조선 의사가 열심히 다루는 실험 기구들을 지켜 보고 있던 한 미국놈이 《오케이! R·H, R·H!》고 환성을 올렸다. 그리고는 《R·H형! 이것 조선 사람 백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500 그람 필요합니다. 그 소녀에게서 더 뽑아주세요.》

《350 그람을 뽑았는 데도 의식을 잃었는데...》

조선 의사의 말이였다.

일순은 꿈 속에서처럼 어렴풋이 이 말을 들었고 자기의 팔에 주사침을 다시 가져다 꽂는 것을 회피하게 느꼈다.

자동차를 타고 함께 달려 왔던 미국놈 군의가 조선 의사를 밀쳐 내고 주사기를 들었던 것이다.

《이 조선 소녀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 미국 군인 한 사람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미국놈 군의는 숨소리마저 끼쳐 가는 일순을 바라보고 천웃음을 지으며 그냥 피를 뽑아 댔다.

일순은 한번 피어 나지도 못한 채 그 침대 위에서 그냥 숨을 거두고 말았다.

× ×

대구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모두 격분해서 주먹을 쥐고 부르짖었다.

《양키들을 이 땅에서 당장 몰아 내자! 저놈들의 숨통을 끊어 버리자!》

은하수

은하수란 수 많은 별들이 뭉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별들은 너무도 먼 곳에 있으므로 그 하나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뭉쳐 있는 별들의 빛이 합쳐져서 약하게나마 흰 띠 모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은하에는 1,500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은하의 중심에는 수만 개의 별이 한곳에 모여 있어 있습니다.

은하의 모든 별들은 이 핵의 인력(중력)에 끌려 당기는 힘을 받아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도 이 많은 별들 중의 하나로서 은하의 핵 주위를 1 초 동안에 245 k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이 은하의 핵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1억 8,900만 년이 걸립니다.

이와 같이 많은 지구의 주위를 돌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며, 태양은 은하의 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하는 얼마나 클까요?

학자들이 계산한 데 의하면 은하의 직경은 약 10만 광년(한 광년이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우주에는 태양이 돌고 있는 은하 외에 10억 이상이나 되는 은하가 있습니다.



뜻에 묻은 쇠'들은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뜻에 묻은 쇠'들을 제때에 뽑지 않으면 쇠'들이 묻은 곳에 빨리 해집니다. 그러면 뜻에 묻은 쇠'들을 뽑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미자나 팥알개 익은 파리 물을 내려 쇠'들이 묻은 곳에 바르고 해'별에 말립니다. 이렇게 2~3회 정도 한 다음 바누로 뽑면 쇠'들은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미자나 파리에는 《개미산》이 있습니다. 이 개미산은 물 속에서 뜻에 묻은 쇠'들과 화합하면 쇠'들은 흰색의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갑니다.

까마귀 할미와 착한 새들



김 재원

그림 안 창수

종달새랑, 피플새랑, 비둘기랑, 의종계 살아 가는 새네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웃에는 역시 마음 착하고 부지런한 누에가 살았답니다. 새들과 누에는 여간 다정한 사이가 아니었지요.

어느 날 비둘기가 사과 씨를 한 알 얻어 왔습니다. 착한 새들은 사과 씨를 심고 정성껏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물'둥이를 이고 먼 샘물 터에 가서 샘물을 길어다 사과 나무에 주곤 했습니다. 사과 나무는 쑥쑥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에는 새들처럼 날아 다니며 일할 수 없는게 딱 안타까웠답니다.

(남들처럼 일도 못하고 무슨 낮에 사과를 먹는담)하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누에는 새들이 나무를 가꿀 때 부지런히 웃'갸를 만들어 새들에게 선물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새네 동네에는 큰 걱정이 한 가지 생겼답니다. 그건 날이 너무 가물어서 샘물터의 물이 점점 줄어든 때문이에요. 그 샘물마저 심술 사나운 까마귀 할미

에게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왕가물이 들어 물이 귀하게 되자 까마귀 할미는 샘물터 두터에다 기둥을 박고 넉넉 담을 둘렀습니다. 지붕은 칙 넉넉로 열기설기 그물처럼 얹어 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물'둥이를 이고 온 착한 새들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샘물터를 뱅뱅 돌던 착한 새들은 소나무 가지에 앉아 말을 동동 구르며 분해 했습니다.

《아전 어떤 늑이 이랬을까?》

《세상에 이런 벌이 어디 있담.》

이 때 높은 마루 나무 꼭대기에서 《까옥 까옥 예헛!》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는 까마귀 할미가 거드름을 피우며 착한 새들을 굽어 보고 있었답니다.

착한 새들은 그제야 샘물터를 두치지 하려고 한재 바로 까마귀라는 걸 알아 차렸어요.

《왜 샘터에다 저따위 짓을 했어요?》

비둘기가 정난 목소리로 내쉴랐습니다.

《까옥 까옥, 넌 무슨 소릴 지껄이니.

저 담 두르노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니?》

《어찌자고 그따위 짓을 했어요. 우린 물 없이 살란 말예요... 우리 사과 나무는 어떻게구요...》

이번엔 종달새가 대들었어요.

그러나 까마귀 할미는 시꺼먼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의 사정을 내가 알 게 뭐가, 이 산'골짜기에서 제일 오래 산 게 나란 걸 너희들이 모르지야 않겠지... 이 샘물터로 말하면 우리 까마귀네 조상님들이 말전한 것이란 말야, 그런 걸 난 지금까지 맘이 좋아서 너희들에게 공짜로 나눠 주었지, 그렇지만 인젠 안 되겠네.》

까마귀는 손에 든 열'쇠를 우정 절그렁 거렸답니다. 그건 샘물터로 들어 가는 데 문을 여는 열'쇠였답니다.

착한 새들은 까마귀와 한창 다툼질만하다 뼉 둥이들을 이고 돌아 왔습니다.

착한 새들은 사과 나무가 불쌍해서 못 견딜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튿날 새들은 또다시 샘물터로 달려 갔습니다.

착한 새들은 까마귀 할미에게 사정을 해 보았답니다. 머루 나무 꼭대기에서 착한 새들의 말을 듣고 있던 까마귀 할미는 마치 동정이나 하는 것처럼 길게 한숨을 내 쉬며 말하는 것이었어요.

《글쎄 거참, 딱하긴 하구만! 그렇지만 우리도 식구가 많은 판에 귀한 물을 그냥 줄 수가 있나, 물 준 값이 있어야지.》

착한 새들은 까마귀 할미의 심'보가 고약하다고 생각했으나 방장 급하게 된 판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 값으로 무엇을 드릴가요?》

하고 종달새가 물었습니다.

《가을에 가서 사과로 받겠네. 그런데 물 한 바가지에 사과 한 알씩은 받아야겠네. 알겠나?》

착한 새들은 그 말이 당치 않다고 생각했으나 사과 나무를 말려 죽일 수는 없었어요. 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한 끝에 까마귀 할미 말 대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 할미는 샘터의 문을 절'트 열려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만 좀 있으라구... 그런데 가을이 되려면 아직 멀지 않았나, 자네들은 내 물을 굉장히 길어 가알텐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두겠나?》

까마귀는 무엇인가 한참이나 생각하고 있더니 손'뼉을 찰작 치며 좋아 했어요.

《...응 좋은 수가 있어, 내 물 한 바가지를 가져 갈 때마다 나무 잎을 한 잎씩 주게나, 가을에 가면 그 나무 잎만큼 사과를 받겠네... 어떤가?》

까마귀는 벌써부터 착한 새들의 사과를 몽땅 뺏으려는 속심을 한 것이랍니다. 사과 나무에 열린 사과보다 샘물과 바꾼 나무잎이 훨씬 더 많아지리라 하고 타산을 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나무잎은 어떤 것으로 할

가?》하고 피플새가 물었지요.

한창 기분이 좋은 까마귀는 선심이나 쓰듯 말했어요.

《아무거나 어떤가. 서로 샘을 똑똑히 하자는 건데... 그건 임자들 마음 대로 하게나. 그런데 거 샘은 언제나 똑똑히 해야 하네.》

착한 새들은 나무 잎에다 손'바닥 도장을 찍어 샘물과 바꾸었습니다.

물'둥이를 이고 돌아 가는 새들의 마음은 업잖아졌습니다.

《이 물 값으로 가을에 가서 까마귀에게 사과를 주잔 말이요?》

피플새가 물었습니다.

《흥, 사과를 왜 준단 말인가, 물이 당장 필요하니까 나무 잎과 바꾸는 거지...》 비둘기가 빙긋이 웃으며 절'갸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때였어요. 어디선지 가느다란 실음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새들이 풀'숲을 헤집어 보니 거기에는 누에가 쓰러져 있었어요. 누에는 아침부터 샘물터 근방에 있는 뽕나무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할미가 샘물터에 담장을 치면서 누에를 내쫓았어요. 제가 두른 담 안에는 아무도 들어 올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에는 까마귀에게 대들다가 허리를 상했습니다.

착한 새들은 누에를 집에 데려다 치료할 해 주었습니다.

*

*

《자, 오늘부터 손'바닥 도장을 박은 나무잎은 이 <샘독> 안에 넣으란 말야... 물 한 바가지에 나무 잎 한 잎이면 아주 죽지 될 그럭이나... 허허허 까옥 까옥.》

샘물터 미루나무 꼭대기에서 까마귀는 꼬덕꼬덕 졸면서 새빨간 사과 산이 솟을 꿈만 꾸었습니다.

(그 사과를 가지고 이웃 두더쥐네 낱알과 바꾸면 겨울 양식도 걱정이 없을 테지. 헤헤헤 까옥)

날은 계속 가물었습니다.

착한 새들은 매일 매일 물'동이를 이고 샘터로 찾아 왔습니다. 까마귀네 <샘독>에는 새들의 손'바닥이 찍힌 나무잎이 자꾸만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새들에게는 새로운 걱정이 또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허리를 상한 누에가 어디로 간다는 말도 않고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새들은 그럴만한 벼를 모조리 찾아 보았으나 아무 데서도 누에를 찾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착한 새들은 불쌍한 누에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새들이 삼은 사과 나무에는 가지가 휘도록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새들은 사과 나무에 기여 드는 나쁜 벌레도 잡아 주고 부지런히 김도 매 주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할미는 꾀하면 새들이 일하는 데 와서 한바탕씩 수다를 떨었습니다.

《참 잘 열렸군, 잘 열렸어. 이제 다 뉘덕인지 자네들은 잊지 않았지... 내가 물을 안 켜면 사과가 열릴번이나 했잖나, 좌우간 잘들 돌봐 주게. 몇 알 열렸는지

내가 다 적어 두었으니까 절대로 죽내신 안 되네...》

착한 새들은 분통이 터지려는 것을 감실히 참았습니다.

사과는 빨갭게 익었습니다. 달콤한 사과 냄새는 온 산'골짜기에 풍겼습니다.

착한 새들이 사과 나무 아래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보며 까마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흐흐흐... 미련한 것들, 자네들이 먹을 사과가 남을 줄 아는 모양이지... 이 까마귀님께 다 치루고 나면 빈 나무 뿐일걸...) 사과 딸 날이 돌아 왔습니다. 까마귀는



아침부터 <까옥 까옥!> 부산을 떨며 돌아왔습니다. 까마귀 할미는 <샘독>을 달구지에 싣고 착한 새네 마을로 왔습니다.

새들은 사과를 따노라고 야단이었습니다. 벌써 사과 나무 아래에는 사과 산이 솟아 있었습니다.

까마귀 할미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까옥 까옥 수고를 했네. 수고를 했어... 오늘은 샘을 합세... 그런데 님자들이 물을 좀 과하게 가져다 쓴 것 같애...》

까마귀는 슬쩍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때 비둘기가 팔을 길어 올린 채 쭈나섰습니다.

《무슨 샘을 보잔 말요?》

《아니 무슨 샘이라니... 이런 뻘 봤나? 아니 사과가 이만치 된 게 누구 덕인가,



응? 그새 물이 없었더면 열릴 번이나 했나?!》

《그래 어찌자는 거요?》

비둘기의 눈은 무섭게 번들거렸습니다.

《하, 이렇게 시치미를 떼다구야... 어서 나무잎과 사과를 바꾸자구, 샘은 똑똑히 해야 하네, 난 사과 한 알도 에누리 못하겠네. 그게 얼마나 귀중한 물이었나...》

《그때 물 값을 갚으란 말이지요. 우리가 길어 온 물의 몇 천 배, 몇 십만 배로 갚아 드리리다. 당신을 저 멀리 산꼭대기에 앉는 호수로 데려다 드리지요. 우린 굉장한 호수를 발견했거든...》

《호수?》

까마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거기 가서 실컷 물 장사를 하구려, 배 터워 놓고 물 장사를 하구려.》

까마귀는 부쩍 약이 올랐습니다.

《무, 무엇이더구... 그대 이 손'바닥 도장 찍은 나무잎은 어떻게구...》

까마귀 할미는 <샘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웬 일일까요?

《샘독> 안에서 손'바닥 도장을 찍은 나무잎을 꺼내려면 까마귀 할미의 상판은 새까맣게 질리었습니다.

《까옥—이제 무슨 번이야?》

까마귀 손에 한웅큼 쥐어진 것은 때만 남은 나무잎 줄기 뿐이었어요.

《...누가 나무잎을... 다... 먹어 치웠구나... 까—옥》

새들도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몹시 통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대 우리가 준 나무잎이 대체 몇 장이나 되우?》

하며 비둘기가 <샘독>을 년짓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까마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손에 쥐었던 나무잎 줄기를 맥 없이 떨구었습니다.

이때 까마귀의 대가리에 사과 한 알이 떨어졌습니다. 꼭대기에 열렸던 사과 한 알이 바람에 떨어진 것이랍니다. 까마귀는

흠칫 놀라 뒤도 돌아 보지 않고 내뺐습니다. 새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선지 <형님들, 날 꺼내 줘요.》하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까마귀가 버리고 간 <샘독> 속에서 들렸습니다.

새들이 달려 가 <샘독> 속을 들여다 보니 거기에는 잃어졌던 누에가 있었습니다. 새들의 부추를 받아 두 안에서 나온 누에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것은 착한 새들을 만난 기쁘고 반가운 눈물이었어요.

새들도 누에가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을 뿐만 아니라 몹시도 고마웠습니다.

까마귀 할미의 얄미운 <샘독>의 나무잎을 없애 치우려고 몰래 두 속에 들어가 산 누에의 행동에 감동되어 새들도 울었습니다.

누에는 어색한 그 자라를 떼우려고 이런 통탄을 했습니다.

《샘독>에서 뽕잎을 실컷 먹으며 휴양을 했더니 인제는 상했던 허리가 깨끗이 나았어요.》

그 후 까마귀 할미는 어디론가 멀리 떠나 갔답니다.

새들의 사과를 빼앗아 겨울을 잘 지내려는 꿈만 꾸며 양식을 하나도 장만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어디에 까마귀 할미 따위를 먹여 살리는 데가 있겠어요.

착한 새들은 온 동산에 사과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누에를 위해 뽕나무도 심었지요.

새들은 까마귀가 들리 켜 샘물터의 담을 모조리 헐어 치웠습니다.

샘물터에서는 언제나 맑은 물이 팔팔 솟아 났습니다.

(1962. 7)

동식물계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평양 사범대학 생물 화학 부장 교수 최 여 구

우리의 주위에는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다. 우리들이 원주이나 등산을 할 때면 실로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에 부딪치게 된다. 물 속에서부터 높은 산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동식물들은 꽃에 따라 각각 다른 종류들이 살고 있으며 또 그들 사이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산과 들을 거닐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도 많은 것이 식물과 동물들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 동식물계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우선 다양한 종류들을 알기 위하여 많이 채집하고 연구해야 한다. 보통 동식물의 종류가 매우 많은 것 같이 생각되나 하나 하나씩 조사하고 정리하여 보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식물은 한 지방의 것을 전부 채집하여 보면 한 500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도 채집하여 조사해 보면 그 구조가 서로 비슷한 것들이 많다. 많은 식물들은 우선 꽃의 구조에 의하여 몇 개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열매와 잎의 구조에 따라 갈라 놓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구조가 비슷한 종류들로 각각 쉽게 갈라 놓을 수 있다. 특히 동물들은 식물보다 구조의 특징이 더욱 뚜렷하여 이렇게 갈라 놓기가 더욱 쉽다.

동물과 식물들은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종류들이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도 계절에 따라 다른 종류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식물을 채집하고 연구하는 일은 1년내내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같은 식물이라도 봄에 꽃 핀 것과 가을에 열매 달린 것을 다 채집하여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한 지방의 나비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봄, 여름, 가을 등 계절에 따라 계속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나비들을 다 채집해야 한다. 조류와 같은 것도 역시 계절에 따라 오고 가는 후조류까지 한해 틀 두고 계속 관찰하고 연구해야 한다. 채집하고 연구한 자료들은 채집한 곳과 날자 등을 기록해서 그 구조의 특징에 따

라 연구해 나가면 아주 흥미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식물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동식물들의 호상 관계를 연구해야 한다. 우선 식물과 동물과의 관계에서 꽃과 곤충 사이의 관계를 알아 보기로 하자. 식물의 꽃들은 나비와 벌들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곤충에 의하여 화분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꽃들은 곤충의 식량으로 되는 꿀과 화분을 가지고 있으며 아름다운 빛과 높은 향기를 가지고 먼 곳에 있는 곤충을 부른다. 달맞이꽃이나 박꽃과 같이 밤에 피는 것들은 밤나비를 맞이 하기 위하여 밤에도 잘 보이는 노란 색이거나 흰색으로 되어 있다. 많은 꽃들은 찾아 오는 곤충들을 맞이 하기 위하여 여러 날 계속 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높은 산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꽃 피는 기간이 아주 짧다. 그러므로 높은 산에 피는 꽃들은 매우 크며 유난히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곤충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식물과 동물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곤충들은 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며, 꽃들은 곤충들이 찾아 오지 않으면 아무리 곱게 피어도 (물론 곤충이 찾아 오지 않아도 자화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 식물도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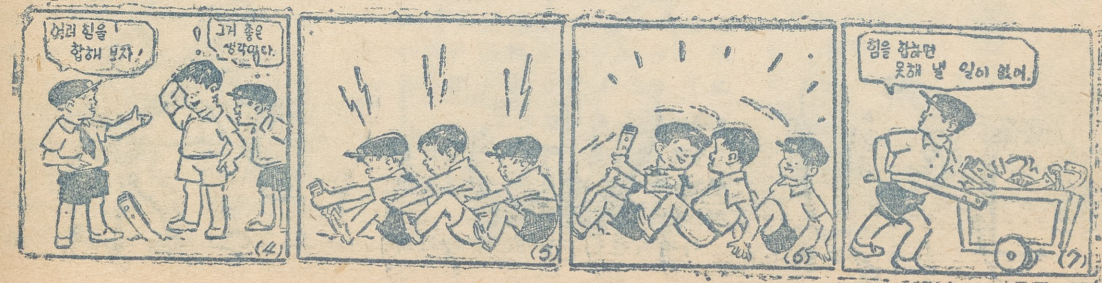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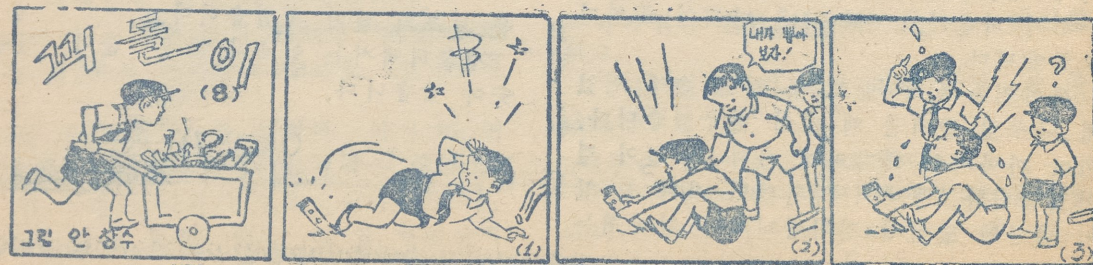
또 한 가지의 예로 식물의 열매와 이것을 먹는 동물들과의 관계를 보자.

많은 식물의 열매들은 익기 전에는 빛깔이 잎의 빛과 같아서 잘 보이지 않으며 맛도 없어서 동물들이 거의 돌아 보지 않는다. 그러나 열매가 익게 되면 빛이 아름



다와지고 맛도 좋으며 높은 향기를 낸다. 그러므로 새나 짐승들은 이런 익은 열매를 쉽게 발견하고 찾아 와서 먹게 된다. 이리하여 식물은 그 씨를 멀리 퍼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식물과 식물들 사이 또는 동물과 동물들 사이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나무 줄기를 바라오르는 개미 무리를 주의 깊게 살펴 보면 잎에 붙어 사는 진디물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미는 진디물의 흥분에서 나오는 당분을 활아 먹으며 진디물은 개미에 의하여 다른 벌레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주위에는 이러한 재미있는 현상들이 무수히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밝히는 것은 매우 흥미 있고 재미 나는 일이다. 우리들이 동식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하면 많은 것을 발견하고 복잡한 동식물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자연을 우리 생활에 유익하게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슬기로운 인민이었다

과학원 역사학 연구소 소장
박사 김 석 형

우리 나라는 오랜 력사와 훌륭한 문화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선조들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는 데서는 물론이고 과학 문화에서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귀중한 전통과 보물을 남겨 주었습니다.

그러하여 삼국 시대의 고분 벽화, 고려의 청자, 금속 활자, 첨성대, 훈민 정음 등 찬란한 문화 유산들이 오늘까지 수 많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귀중한 문화 유산들을 극진히 사랑하였으며 여러 번 외적의 침략이 있었으나 끝

내 지켜, 오늘 우리 시대에까지 전하여 주었습니다.

고구려의 옛 무덤들과 그의 벽화는 1,500년 예전의 그대로 생생하게 오늘까지 남아 있어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화가들을 비롯하여 많은 예술가들과 기술자들이 외국에 까지 나가서 활동하였으며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일본에는 지금도 백제의 화가 아좌와 고구려의 화가 담징이 그렸다는 그림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그림들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고 훌륭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발전하였습니다.

경주에 있는 《첨성대》는 동양에 있는 천문대 가운데서 제일 오랜 것이며, 1,441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비오는 랑을 재는 《측우기》를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은 1,234년 이전에 벌써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수 많은 책들을 찍었는데 이것은 구라파에서 독일 사람인 구텐베르그에 의해 활판 인쇄술이 처음 나온 것에 비하면 200여 년이나 앞선 것으로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랜 의학 대 백과 전서인 《의방 류취》와 같은 굉장한 책을 우리 선조들이 발간한 것도 바로 이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청동기를 만들어 썼고 동방에서 가장 일찍부터 철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리 순산 장군이 임진 조국 전

쟁 때 왜놈을 무찌른 《거북선》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철갑선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건축 기술, 음악, 미술 등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동방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과학 문화의 보물고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 같은 것은 아직 이 세상에 나타나기도 전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운 과학 문화의 전통은 오늘 로동당 시대에 더욱 꽃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략 체계》의 발전을 비롯하여 비날론의 발명 등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슬기롭고 용감한 선조들의 과학 문화 전통을 이어 우리 조국을 빛내일 앞날의 과학자 기술자로 더욱 열심히 배워 나갑시다.

보이지 않는 통신원



나는 이번에 레철이 밝은 소년단원들의 소식을 전해 달라는 편집부의 부탁을 받고 함경남도 광천군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함경남도 광천군 지초 인민 학교 앞에 다달았을 때입니다. 나는 마친 일터로 나가시는 마을 아저씨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마주 오던 소년단원 다섯 동무가 모두 공손히 머릴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애들은 마을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거든... 참 기특한 애들이야.》
아저씨들은 연신 감탄하며

칭찬하는 것이었어요.
(참 레철이 밝은 동무들이구나, 어디 따라가 보자구.) 나는 어떻게 마음 먹고 그들의 가방 속에 들어 갔습니다.
가방 속에서 나는 그들이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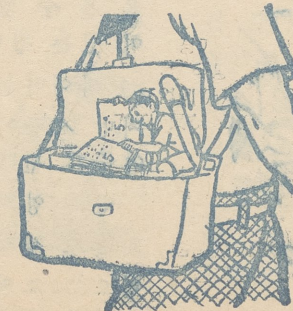


습장에 쓴 이름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1 분단 삼 분녀, 한 순월, 김 태운, 한 순옥, 전 완옥 이들은 레철이 바르고 몸 차림도 단정했지만 가방 속 책들도 아주 깨끗했어요. 가방을 털어내고 놓는 바람에 깜짝 놀란 나는 가방 속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벌써 교실에 와 있었습니다. 교실 안을 한 바퀴 돌아 가다가 나는 벽에 걸려 있는 《붉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들이 레철을 잘 지키는 가지가지 이야기들과 이들이 어떻게 레철을 지키도록 도운 반

장 분녀 동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분녀 동무는 《웃 어른들을 어떻게 존경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소년단원의 의무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 모임도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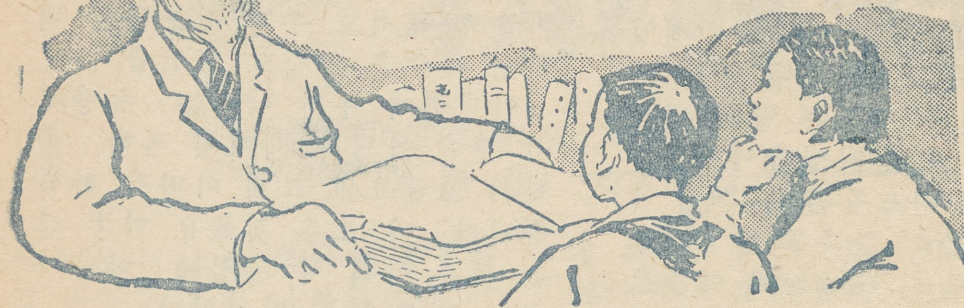
하고 김 일성 원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웃 어른들을 존경했는가 하는 이야기 모임도 조직 했어요.

그리고 분녀 동무가 먼저 모범이 되어 웃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며 늙은이들의 길 안내도 친절히 하였습니다.

지금 이들은 늙은이들을 도우며 동무들 끼리 말도 아름다운 말을 쓰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동무들이지요. 동무들도 이렇처럼 레철 밝은 소년단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지요?

칙척 할아버지



만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일동—칙척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칙척 할아버지—응, 너희들 왔느냐?

정호—우리는 얼마 전에 만화 영화 《금도끼와 쇠도끼》를 참 재미 있게 보았어요.

우리는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만화 영화는 어떻게 만들까?>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그림을 그려서 찍은 것 같다고도 하고, 그림을 그려 만들었다면 어떻게 산 사람처럼 움직이겠는가 하고 하는 동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으려 왔습니다.

칙척 할아버지... 응, 만화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야기해 달란 말이지, 이야기해 주지...

먼저 만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너희들이 흔히 보는 보통 영화에 대



만화 영화 《금도끼와 쇠도끼》에서

해서 이야기 하자.

우리가 영화에서 사람이 두 걸음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있을 때, 즉 영화를 1초 동안 보고 있을 때 영사기 렌즈 앞으로는 24 칸의 필름이 지나간다.

길수—할아버지 그럼 영화 찍는 기계는 1초 동안에 24 장의 사진을 찍겠구만요?...

칙척 할아버지—그렇지... 사진을 찍는 사진 기계는 한 번에 한 장씩 찍지만 영화 찍는 기계는 1초 동안에 24 장 이상을 찍으면서 사람들과 물건들이 움직이는 모양을 계속 찍는다.

그때 걸어 가는 사람을 찍은 영화 필름을 펼쳐 보면 걷는 모양을 한 같은 필름이 쭉 계속된 것을 볼 수 있단다. 그러나 그 한 장 한 장을 자세히 보면 조금씩 발걸음을 앞으로 내민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4 장 만에는 두 걸음 걸어 나간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작이 조금씩 차이 있는 필름을 영사기에서 1초 동안에 24 장이라는 빠른 속도로 풀어 가면서 비치면 사람이 걷고 있는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다.

만화 영화가 보통 영화와 다른 점은 너희들도 생각한 것처럼 한 장 한 장을 그림으로 그려서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자 말했지만 보통 영화에서 두 걸음

걷는 모양을 영화로 보여 주자면 24 장의 필름이 필요한 것처럼 만화 영화에서도 역시 두 걸음 걷는 모습을 보여 주자면 24 장의 필름이 필요하다. 때문에 두 걸음 걷는 모습을 조금씩 다른 24 장의 그림을 그려서 찍어야 된다.

길수—야! 그럼 《금도끼와 쇠도끼》 영화에서 절성이 나무 찍는 모습만 하여도 수백 장의 그림을 그렸겠구만요.

칙척 할아버지—그렇단다. 《금도끼와 쇠도끼》 영화가 약 3만 5천 장의 그림을 그려서 찍은 영화란다.

일동—네?! 그렇게 많아요? 굉장하구만요.

길수—만화 영화 하나를 만들자면 참 많은 노력이 드는구만요. 할아버지, 그런데 만화 영화도 보통 영화 찍는 기계로 찍습니까?

칙척 할아버지—보통 영화 찍는 기계는 쭉 계속해서 찍지만 만화 영화는 한 장, 한 장의 그림을 찍어서 필름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 사진 기계와 비슷하게 만든 촬영기로 찍는다.

정호—할아버지 만화 영화 배우가 될 수는 없습니까?

길남—하하... 만화 영화 배우가 어디 있겠니... 그림을 그려서 만드는 영화에 배우는 해서 될하나.

칙척 할아버지—정호가 희망하는 대로 노력만 하면 만화 영화 배우가 될



만화 영화 《금도끼와 쇠도끼》에서

수 있지,

길남—네?! 만화 영화 배우가 될 수 있다구요?!

칙척 할아버지—예술 영화에서는 배우들이 직접 연기하는 것을 찍지만 만화 영화 배우들은 거울 앞에서 연기하면서 그 움직임을 보고 그림을 그리지 즉 배우이며 미술가들이란다. 그러니 정호도 노력만 하면 만화 영화 배우가 될 수 있지 않겠니.

길수—할아버지, 만화 영화는 보기도 재미나지만 만드는 법도 참 재미 있군요.

칙척 할아버지—허허 그래, 너희들이 것처럼 재미 있어 하는 만화 영화를 앞으로는 보다 많이 만들어 내게 된다.

항상 우리 어린이들에게 깊은 배려를 들리는 당과 정부에서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건 아끼는 것이 없다.

지금 당과 정부의 배려로 영화 촬영소에서는 만화 영화 《기계화 종을시구》, 《쫓겨 간 미국놈》, 《흑 뱀 이야기》, 《적은 화분》 등 만화 영화를 만들고 있단다. 앞으로는 보다 재미 있는 만화 영화들을 더 많이 보여 주게 될 거다.

일동—할아버지 참 재미 있게 들었습니다. 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칙척 할아버지—오냐, 모를 것이 있거든 언제든지 찾아 오너라,



만화 영화 《기계화 종을시구》에서



(작문)

《소년 신문 지상 작문 발표회》 제 1차

심사에서 3등 당선 작품

새 옷을

같이 입고

나는 교복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4월 달도 거의 다 간 어느 날 우리는 선생님께서 매일 새 교복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밖에 나가 보니 유달리 하늘도 더 맑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빨리 아홉시가 됐으면...하고 기다렸습니다. 아홉시가 딱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 아침은 시계가 꾀든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덧 일곱시가 되어 학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기다려다 못해 학교로 내 달았습니다. 학교에 와 보니 다른 동무들도 나처럼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아홉시가 왔습니다. 나는 당에서 내주는 새 교복을 받았습니다. 교복은 아주 곱고 맵시 있고 몸에 딱 맞았습니다.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제각 제 교복으로 갈아 입었습니다. 교실 안은 갑자기 환해

지고 아름다운 꽃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새 교복을 차려 입은 동무들은 막 자랑하고 싶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약속이나

(동시)

굴진공 아버지

머리엔 안전모 꼭 눌러 쓰고
허리엔 허트라 굳게 차고요
굴진공 아버지 석탄 캐러가요
성글성글 걸어서 석탄 캐러가요

아버지의 자랑찬 일터는요
우리들이 공부하는 학교 밑이
에요
차알기 들어 잡고
뚜루루 석탄석을 무닐때면

공부하는 내 모습도 그려본대요
노래하는 내 목소리 새겨 들는
대요
검은 보배 캐내는 우리 아버지
1,500파운 석탄고지 문제 없대요

행복 최영군 학교 중학교 단
박 정숙

한듯이 어느 사이엔가 교실 정면에 모신 원수님 초상화 앞으로 향해 섰습니다.

원수님은 《야 너희들이 참 아름답구나!》하고 기뻐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학습을 끝마치기가 바쁘게 나는 듯이 집으로 달음질쳐 왔습니다. 빨리 어머니에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 교복을 입은 나를 보시자 어머니는 몹시 기뻐하시며 《참 좋구나!》하고 여러 번 나를 앞뒤로 돌려 세우고 옷 차림을 바르 잡아 주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거울 앞에 서서 재촉 웃었습니다. 그 날 밤 나는 옷걸이에 작년 교복까지 합쳐 제 별의 교복을 걸어 놓았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교복 세 벌을 보니 나의 마음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러노라니 어느덧 남반부에서 교복은 교사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동무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벌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안타깝던 나머지 나는 《미국놈 새끼!》하고 막 욕을 해 놓았습니다.

함남도 인흥군 범포 중학교

조금반 박 윤녀

(편지)

보고 싶은

큰 아버지께

큰 아버지!

지금은 깊은 밤이지만 우리 집은 직구는 잠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승냥이놈들이 또 조국 남반부의 어느 한 어머니를 자동차로 잡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자주만 큰 아버지가 보고 싶어져요.

어서 빨리 만나 우리의 행복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참 애타군요. 큰 아버지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시지요? 나는 큰 아버지의 동생 김 희희의 막내 딸 복혜예요. 큰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거예요.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 집 식구들은 지금 평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1차 귀국선으로 조국의 품에 안겼지요.

귀국선이 청진 부두에 닿자마자 어머니는 너무도 기뻐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큰 아버지, 나에게는 영원히 가슴에 간직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양에 도착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

다. 나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3천 명이나 되는 예술인들이 나오는 음악 무용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구경했습니다.

큰 아버지! 이 날 나는 그처럼 뽕고 싶던 김 일성 원수님을 모시고 구경했습니다. 나는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렸어요. 원수님은 내 손을 꼭 잡아 주시고 께안아 주셨습니다.

나는 원수님의 넓은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친 아버지의 품처럼...

큰 아버지, 조국의 품에 안긴지도 벌써 2 년이나 되었습

니다.

어머니만 집안 일을 돌보시고 우리는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국제 관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철 오빠는 매년이면 졸업해요.

민혜 언니는 평양 고등 전설 전문 학교에 다니고 둘째 언니는 평양 미술 대학에 다니지요. 셋째 언니는 평양 전설 대학 예비과 1 학년에서 공부하고요.

나는 평양 음악 대학 민족 기악 학부 예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다섯 형제는 이렇게 재간과 소질에 맞는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지요.

옷도 신발도 학용품도 모두 나라에서 대준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사회주의 조국입니까! 우리가 그대로 일본에 남아 있었다면 대학이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가야금을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진도 아리랑》도 배웠고 《천안 삼거리》, 《노를 장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동시)

림진강 야영

오늘은 즐거운 야영의 날
소녀단기 펄펄
북소리에 발맞추어
우리는 여기 림진강에 왔어요

우리 보단 동무들
모두모두 즐거워
림진강 맑은 물
끼얹으며 놀아요

우리는 앞날의 바다의 행사
림진강에 뚝뚝 배 띄워 타고요
행복의 노래 부르며

삼승대로 갈때면
활벗고 굽주리는
날들 땅의 동무들과
우리 행복 나누고 싶어
손저어 불러요

그날 위해
우리 모두 열심히 배워
모범 보단 꾸리자고
새 결의 다지지요

황해북도 토산군
월성 중학교 6분단

김 명옥

나는 그 중에서 《천안 삼거리》를 제일 좋아해요.

그것은 《천안 삼거리》가 큰 아버지가 사시는 고장이니까요. 학교에서 돌아 와서 《천안 삼거리》 노래를 가야금으로 탈 때면 큰 아버지가 더 그리워져요.

우리는 큰 아버지와 한 나라 한 땅에 살면서 왜 만날 수 없어요. 왜 편지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어머니에게서 큰 아버지가 몹시 가난하다는 걸 들었어요. 큰 아버지는 늙으셨겠는데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나에게 한 분 밖에 안 계시는 큰 아버지! 나는 오빠 언니들께 말했어요.

동일되는 날 전설 기술을 배우고 있는 민혜 언니와 경혜 언니는 큰 아버지께 집을 벗 있게 짓고, 미술 대학에 다니는 옥혜 언니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방안에 붙이고, 나는 큰 아버지와 온 식구들 앞에서 가야금에 맞춰 노래를 부르자고요.

그러면 큰 아버지, 그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큰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어요.

평양 음악 대학 민족 기악
학부 예과 2학년 2반

김 복혜

(동시)

행금을 배워요

나는 행금을 배워요
언젠가 우리 아버지
이 행금'을 꼬으시며
설을 많은 지난날을 이야기했
어요

아버지는 행금을 켜며
올기 장사, 팻장사 다니며
끼니를 이어 갔대요

그러나 나는요 행복을 노래하려
행금을 배워요

아버지는 지금 조합의 행금 선수
논'벌에도 발머리에도
아버지의 행금소리 즐겁게 울려

사람들을 언제나 기쁘게하지요
아버지는 행금을 만들어 주시
면서
심장으로 행금채를 놀리려했어요
그러면 더 좋은 소리난대요
그래야 오늘의 행복 다 노래한대
요

나는요 훌륭한 행금수가 되어
김 일성 원수님이 베풀어 주신
크나큰 행복을 행금'줄에 담아
온 세상에 자랑할래요 노래할래요

평남도 통강군 검산 중학교
초급반 1학년 박 인자

(작문)

《소년 신문 지상 작문 발표회》 제 1 차

심사에서 3등 당선 작품

중학생이 된

나의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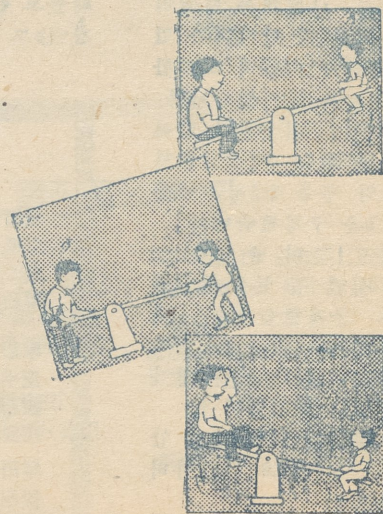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졌던
내 소원이 오늘에야 이루어졌
습니다. 중학생이 된 것입니다.
중학생 모표를 달고 다니던
형님들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모표를 사다 놓고 그 날을 손
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님들이 부
럽지 않게 되었지요. 인민반
동생들이 《형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나도 이제는 《형님》이
된 영예감을 억제할 수 없었어
요. 중학생이 된 첫 아침 학교
로 가는 내 마음은 한없이 기
뻐고 하늘이라도 날아 오를듯
하였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도
나를 쳐다 보았습니다. 길'가
의 가로수들도 푸른 단장을 하
고 나를 반기는 것만 같았습니
다. 나는 저도 모르게 《김 일성
장군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실에 들어 서니 동무들은
벌써 어느새 모였는지 중학생

(만화)

영
민
이
의
표



이 된 기쁨을 진이 나서 이야
기하고 있었지요. 모두들 갑자
기 더 어른이 된 것만 같았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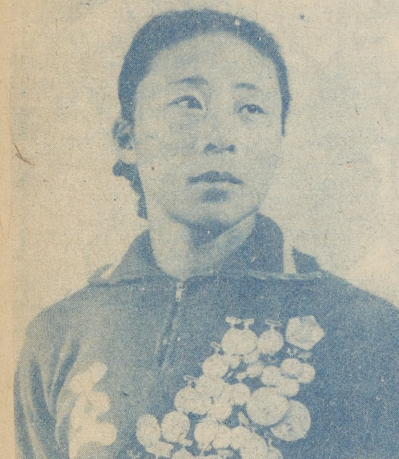
나는 책보를 풀고 책상을 틀
여다 보았습니다. 늘 다루고
아끼던 책상이어서 내 얼굴이
환히 비쳐 보이고 가슴에 단
《모범 분단》 휘장이 번쩍거렸
습니다. 나는 벽 중심을 쳐다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인자하게 웃으시는
원수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
습니다. 나는 우리들에게 누구
나 다 중학생이 되고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앞길을 열어
주신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윽고 첫 종이 울렸습니다.
행복과 기쁨, 감격에 넘치는
첫 수업을 받는 우리들의 가슴
마다에는 중학생이 된 기쁨을
안고 공부를 잘 할 결의로 차
고 넘쳤습니다. 나는 곧 한자
한자를 정성 들여 썼습니다.

평북도 신의주시 남송 중학교
초급반 1학년

문 영석



튼튼한 몸은 어려서부터

공훈 체육인

신 금단

소년단원 동무들!

지금 나의 앞 가슴에는 지난
6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즈나
멘스키 형제상 생탈을 위한 룩상
경기에서 받은 두 개의 1 등 상
금메달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는 400 메터 경주
와 800 메터 경주에서 각각 세
계 기록을 돌파하였습니다.

수만명의 여러 나라 손님들은
《영웅적 조선!》 《가례야, 가
례야!》 하고 그 넓은 레닌 경기
장이 떠나 같듯이 환성을 울려 주
었습니다.

나는 이 날 영웅 조선에 태어 난
기쁨과 노동당 시대에 살며 노동
당의 딸이 된 행복과 자랑으로 가
슴이 터질듯 했습니다.

나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름

없는 한 실타래였습시다. 그러나
당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몇 해
안 되는 동안에 오늘처럼 세계에
이름을 떨치는 체육인으로 자랐
습니다.

당은 나에게 체육인으로서 가장
큰 영예인 공훈 체육인 칭호를
주었으며 이번 대회에서 돌아온
후에는 또 국기 훈장 제 1 급의 높
은 영예까지 주었습니다.

나는 이 영예를 한시도 잊지 않
고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기대에
기어이 보답하리라 하는 굳은 결심으
로 지금도 계속 체육 기술을 다지
고 있습니다.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리라는
당의 가르침을 받들고 나는 매일
아침 11 km 이상씩 달리기 련습
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련습
을 할때 나는 그것을 련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항상 결승을
다투는 《전투》 마당에 선 것과 같
은 긴장된 마음으로 있는 힘껏 달
립니다.

비가 내려 밖에서 훈련하지 어
려운 날은 체육관 안에서 65kg
이 넘는 쇠'덩이를 15~20회
씩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몸을
단련합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당 중앙 위원회는 소년단 창립
15 주년을 맞으면서 전체 소년
단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튼
튼한 몸은 나라의 보배》라고 가
르쳤습니다. 나라를 튼튼히 지키
고 영예로운 노동에 참가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몸이 튼튼해
야 합니다.

튼튼한 몸은 어려서부터 다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달음박질을
잘 하여 늘 마을 어른들에게서 칭
찬을 받아 왔지요. 나는 인민 학
교에 다닐 때 점심 시간엔 학교에
서 집에까지 십리'길을 늘 달
려 갔다 달려 오곤 했습니다. 그
리고 나는 또 줄넘기 선수였습니
다.

줄넘기를 하면 나를 이겨 내는

아이가 없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장래 체육
선수가 되자고 남달리 체육 기술
을 다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항상 뛰고, 달리고
하여 몸을 단련해 왔기 때문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
지 어머니를 도와서 내가 어렸
을 때부터 일을 많이 해 온 데 있
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찌
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어
린 동생들과 함께 살아 왔습니
다. 그래서 어머니를 많이 도와 드려
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커서는 공장에 가서
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동을
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내 몸
은 어느새 튼튼히 익세게 자랐
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도 당의 가르침 받들고
어렸을 때부터 몸을 튼튼히 단련
하십시오. 모두다 한 가지 이상
의 체육 기술을 배우며 어떤 곤난
앞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튼튼한
몸으로 단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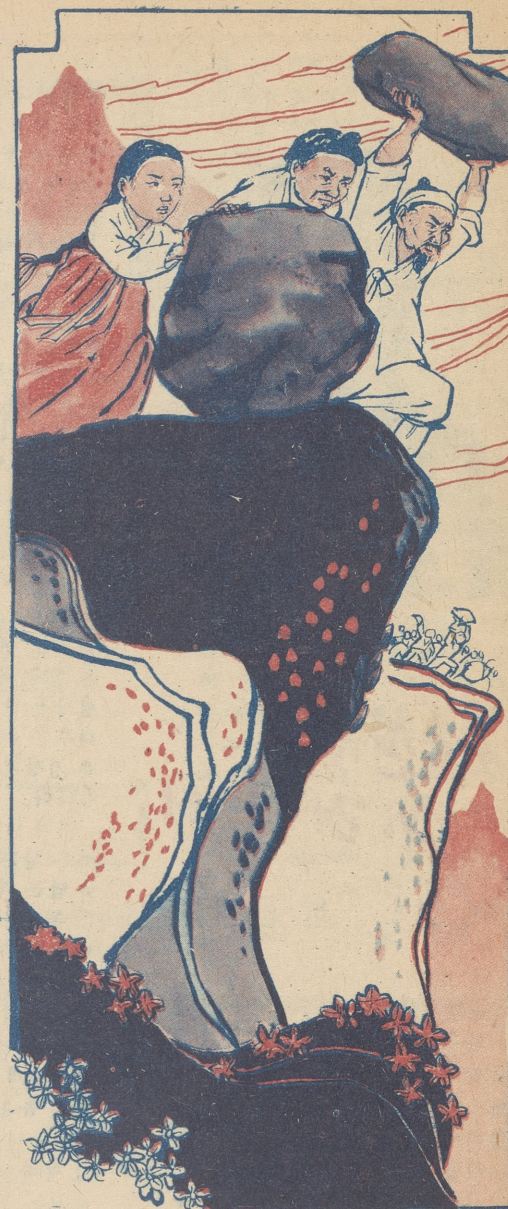
800 m 경주에서 세계 기록을 돌파하고
있는 신 금단 선수



④ 도끼를 돌려 치며 적들의 한 복판으로 뛰어 들어간 일'군 총각은 이놈 패고 저놈 찌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패면 이놈이 약 꺼꾸러지고 저놈 찌으면 저놈이 약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돌무더기 사이에 서 있던 젊은 이들도 불안감, 신기한 장수로 변하여 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뭉툼이에서 우렁과 울고 쇠스랑과 창메시는 '번개' 불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⑤ 일'군 총각은 삼시간에 적병 열 몇 놈을 찌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몇 놈의 어깨를 향하여 도끼가 날아 가든 순간 그 도끼가 감자 기 고요해지며 하늘 공중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침략자의 화살 하나 일'군 총각의 가슴에 꽂혔던 것입니다. 일'군 총각은 비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 내 고향과 고향 사람들과 어머니와 진달녀를 두고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는 그만 고향땅을 안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흘러 가던 시냇물 소리도 끊어지고 동쪽산 솔바람 소리도 멎었습니다.



⑥ 노한 얼굴들이 사방에서 우뚝우뚝 일어섰습니다. 한 얼굴은 어머니 얼굴이고 또 한 얼굴은 진달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진달녀는 치마 자락을 바람'결에 휘날리며 큰 바위 곁으로 뛰어 가 떠 밀며 부탁했습니다. < 큰 바위가 움직여다오. 데굴데굴 굴어다오. 너도 너도 뵈겠구나. 내 아들 죽인 놈 뵈겠구나. 총각 죽인놈 뵈겠구나. 아들 죽인놈 산 밑에 있다. 총각 죽인놈 산 밑에 있다. 데굴데굴 굴어 자 모주리 죽어다오. >

⑦ 그러자 수 많은 목소리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어머니와 진달녀가 웅치는 부탁 소리를 받았습니다. < 어머니들이여 어서 나와 큰 바위들을 굴립니다. 처녀들이여 어서 나와 덕바위를 굴립니다. 남의 아들 죽인 놈이 산 밑에 서 있다. 남의 총각 죽인 놈이 밋모루'개 언덕에 서 있다. 약바위가 굴어 가면 원수들이 쓰러지고 덕바위가 굴어 가면 죽었던 용사가 다시 살아난다. >

⑧ 수천 개의 바위들이 내려가서 수만 명 원수들을 죽여 부숴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소리와 함께 '밋모루'개 언덕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우리 일'군 총각의 팔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사랑하는 도끼메 부산땡을 짊고 벌떡 일어 섰습니다. < 백정놈들아! 거기 섰거라, 나는 죽을 수 없어 다시 일어섰다. > 등 뒤로 별안간 두 도끼 장수가 도끼를 들고 쫓아 오는 바람에 왜놈들은 발발 땔땔 쓰러지며 꺼꾸러졌습니다.





54 그 때 왜놈 장수 열 스무 명이 두 도끼 장수를 둘러 싸고 달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도끼에서 우뢰 소리가 쾅쾅 울리며 네개, 여덟 개의 칼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서슬 푸르던 왜놈 장수 여덟 명이 깨져눕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날창 든 왜놈 병졸이 달려 들며 두 도끼 장수를 찔렀습니다. 그만 비틀거리며 사랑하는 도끼에 부딪혀 땅을 깨 안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55 사방에서 노한 열풍이 일어선며 북쭈를 웨쳐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사방에 퍼지자 잠자리에서 젊은이들과 처녀들이 원쑤를 갇으러 달려 나왔습니다. 사방에서 풀판들이 벌렁벌렁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풀판이 우뚝 우뚝 일어섰습니다. 풀 속에 숨었던 용사들이 발안간 원쑤를 죽이며 달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두 도끼 장수가 네 도끼 장수로 살아나 원쑤와 싸웠습니다.

56 용감히 싸우던 도끼 장수는 그만 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때 종달새 아저씨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종달새를 불렀습니다. 종달새는 까치도 불러 왔습니다. 종달새와 까치는 원쑤놈들한테 달려 들어 눈을 쪼아 주고 수천 개의 화살을 뱉아다가 도끼에 용사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용사들은 그 살로 수천 명의 적들을 깨꾸러 쓰러했습니다. 그러자 열스무 번 기적이 일어나며 죽었던 일꾼 총각은 계속 살아나 원쑤와 싸웠습니다. 그 때마다 감절썩 수천 명으로 살아난 도끼 장군은 드디어 원쑤를 물리치고 도끼에 부딪혀 땅을 지켰습니다.



57 침략자들이 물러 가고 큰 풍년이 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밋모르게 언덕에 큰 꽃잔치가 베풀렸습니다. 두리둥둥 북 우는 소리와 함께 장구 소리와 피리 소리가 일어 나며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58 이천 마흔 여덟 명으로 변한 용감한 도끼 장수들이 얼굴에 웃음을 띠우고 어깨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 영웅한 인민 영웅들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파랑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입고 머리에 꽃을 꽂은 진달녀가 자기 아들과 사랑하는 총각을 그 이천여 명도끼 장수들 속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59 그런데 누가 아들인지 누가 그 총각인지 어머니와 진달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때 노래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밋 번을 일어난 원쑤지며 싸웠다. 그 밋 번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싸웠다. 어머니도 진달녀도 이 노래를 불렀는데 한번 부르고 쳐다보니 네 명 도끼 장수로 보이고 두 번 부르고 쳐다보니 두 명 도끼 장수로 보이고 노래를 마치고 쳐다보니 바로 그 아들, 그 총각님이 거기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진달녀는 달려 나갔습니다. 뛰는 가슴을 안고 숨는 기쁨을 웨치며 날개 돋은 걸음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순간 일곱 개의 태양이 일시에 떠오른 듯 온 세상 온 종달새와 꿩새가 다 날아와 어머니와 진달녀가 원쑤를 물리친 그 총각을 만나는 기쁨을 노래 불러 주었습니다. (끝)



(유희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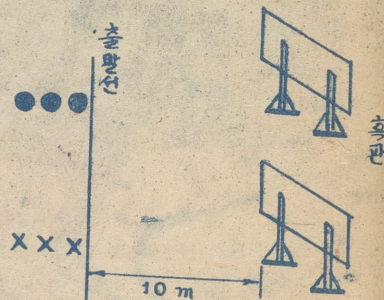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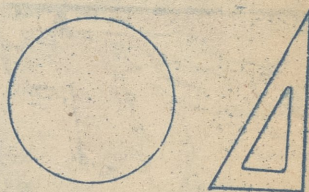
☆ 글자 바로 쓰기 ☆

- ① 유희장과 그의 준비
7. 유희장은 그림 (1)과 같다.
나. 흑판 2개, 흑판·지우개 2개
백묵 2개를 준비해야 한다.
- ②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눈 다음 출발선 뒤에 한 줄로 서게 한다. 흑판에는 유희를 시작하기 전에 글자 '자'와 띄어쓰기를 틀리게 써서 유희자들이 볼 수 없게 돌려 세운다.
- ③ 출발 신호에 따라 1번 유희자는 흑판까지 달려 나가 글자 '자'와

띄어쓰기가 잘 못된 것을 고치고 돌아와 다음 동무와 손바닥치기로 교대한다.
교대한 유희자는 또 흑판까지 달려 나가 채 고치지 못한 것을 다시 고치고 돌아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유희자까지 끝난 다음에는 흑판을 앞으로 돌려 세우고 어느 편이 정확한지 고쳤는가를 알아본다.

☆ 원의 중심을 찾아 내시오.

영남이는 눈금이 없는 삼각자 하나와 연필(연필은 필요한 선을 긋기 위해서만 쓴다.)을 가지고 주어진 원의 중심을 찾아 냈어요.
어떻게 하였을까요?



☆ 만물 상자 ☆

이 요술은 빈 상자에서 어떤 물건이든 자 꼬집어 내는 요술이다.

7. 준비 - 나무로 된 판 한 개를 만든다. 그림 1과 같이 바닥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고 네면 가운데서 세면은 문짝이 달려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어 있으며 천정 부분도 같은 문으로 되어 있게 만든다. 다만 한 면만은 그림 2와 같이 반원형으로 만들어 돌아 가게 만든다. 이렇게 하여 반원형 부분이 안으로 돌러지면 바깥 면으로 보아 아무런 것도 없게 보이며 반원형 부분이 밖으로 돌러지면 반대로 안으로 보아 아무런 것도 없게 보이게끔 되어야 한다.

반원형의 옷 부분만은 돌러져 있게 하고 이 속에 물건들을 넣어 두게 한다.
상자의 크기는 적당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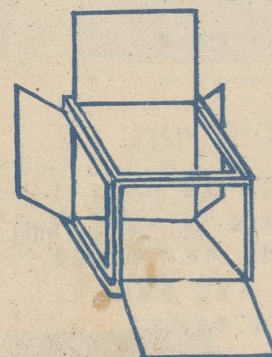


그림 1

☆ 속담 ☆

△수박 겉핥기

(공부할 때 내용을 깊이 파고 들지 않고 그저 대강 알고 넘어가는 것을 말함.)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살아서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해 놓아야 오래오래 그 이름이 남는다는 말).

△도람 먹고 고래 잡을기

(노력을 적게 하고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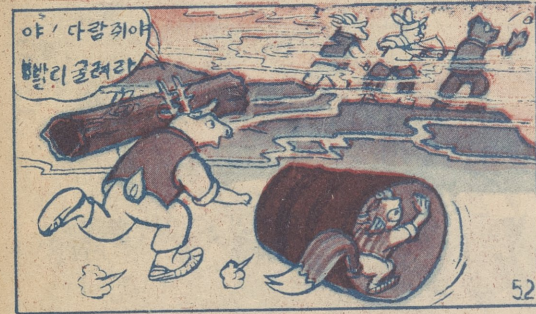
△공든 탑이 무너지랴.

(정성과 노력을 들인 일은 헛되지 않는다는 말)

물품 보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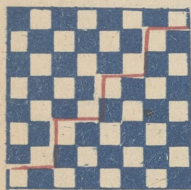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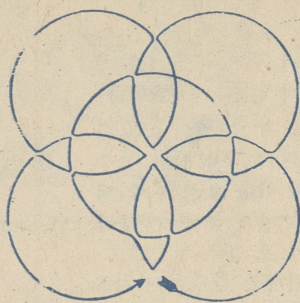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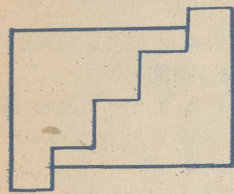


그림 2



전호 해답

※ 생각하고 궁리하면 버릴 것 ※ 꽃발 구경의 해답
이 없다는 해답 의 해답



※ 알아 마치고

(답) 소년단원들은 집단을 사랑하고 동무들을 사랑하여야 한다.

☆ 모양 바꾸기

목공 크루쇼크원인 수길이는 그림과 같은 두 개의 타원형 판대기로 한 조각도 버리지 말고 동그런 뚜껑을 만들 과업을 받았다.

수길이는 판대기 생긴 모양

—한 조각도 버리지 말자

을 유심히 살펴 보고 또 콤파스로 재 보기도 하였다. 결과 한 조각도 버리지 않고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해답은 다음 호에)

9호 현상 문제

☆ 나누어 보세요.

한 꾸러미 속에 9 kg의 사탕가루가 들어 있다. 50 g와 200 g의 추를 가지고 접시 달린 저울을 써서 2 kg 들어 있는 꾸러미와 7 kg 들어 있는 꾸러미로 나누어 보시오. 세 번 이상 저울에 달아서 안 됩니다.

☆ 수수께끼 ☆

△목 베고 벨까지 다 때 내야만 소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해답—파리).

△밤에 불만 커면 도망치는 게 무엇인가?

(해답—어둠).

△아래로 먹고 위로 게우는 게 무엇인가? (해답—대패).



(우리 나라의 명승지)

백령 대굴과

동룡굴



만모소동

우리 나라에는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철보산 등 경치 좋고 아름다운 산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는 백령대굴 동룡굴 성인동 가사굴 인물굴 등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석회 동굴이 있어 땅속도 금강산 처럼 아름답습니다.

석회동굴이란 석회암층 사이에 끼워 있는 석고라는 것이 물에 녹아 여러가지 모

양을 이루어 된 굴을 말합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그러면 이번 호에는 지하 궁전으로 자랑 높은 유명한 백령 대굴과 동룡굴을 보기로 합시다.



(봉소동)



(루 각)



금강굴 (백룡대굴)



(형제탑)



금강굴 (동룡굴)



바다 속의 비밀을 찾아서

(4)



그림 박춘삼

① 철이-이 해초는 몇 십년 자랐겠지?

자게-몇 십년 이라고요? 작년부터 자란 해초들인데요.



② 철이-무슨 비결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자랐을까?

웅이- 바다 속에 영양분이 많고 외부의 피해를 적게 받으니 크게 자랐을 밖에.



③ 철이-앗 무엇이 잡아 당겨.

웅이-딱 부들고 있으라구.



④ 철이-이게 무슨 영문이야.

웅이- 이거 록지에 올라 온게 아니야?



⑤ 고래-고향친구! 놀랄건 없네 난 비록 적은 고기들을 잡아 먹지만 자네들을 놀라 주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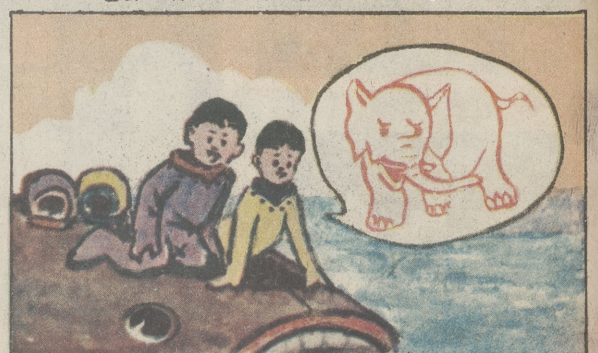
웅이- 뭐? 우리가 자네의 고향친구라구?



⑥ 고래-옛날에 우리도 록지에서 살았으니까 하는 말이지.

웅이-뭐? 자네가 록지에서 살았다고?

고래- 하하! 나야 1960년 생인데 어떻게 살았겠나!
우리 조상들이 살았지!



⑦ 고래-그렇지만 난 록지에 가고 싶지 않아!

철이-그건 왜?

고래-록지 보다 바다에는 더 많은 맛 있는 고기들이 있거든.

웅이-흠 그래서 코끼리는 30년을 자라야 엄지가 되고 새끼를 낳지만 고래는 두해 동안에 크게 자라 새끼를 낳는구려

ЦЕХ 1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0 1-12 8248